

太白山學術大會

1. 太白山 天祭壇의 歷史性과 文化財的 位相
(任東權：文化財委員)
2. 太白山 天祭와 檀君神話의 構造
(김선평：중앙대 교수, 한국민속학 회장)
3. 崇山意識과 太白山 天祭
(崔承洵：전강원대 교수)
4. 太白山 天祭와 鄉土祝祭
(장정룡：강릉대 교수)

때：단기 4326년 10월 3일 오후 6시

곳：태백문화원 문화사랑방

太白山天祭委會
太白文化院

차례

1. 太白山 天祭壇의 歷史性과 文化財的 位相 1
(任東權 : 文化財委員)
2. 太白山 天祭와 檀君神話의 構造 21
(김선평 : 중앙대 교수, 한국민속학 회장)
3. 崇山意識과 太白山 天祭 32
(金承洵 : 전강원대 교수)
4. 太白山 天祭와 鄉土祝祭 44
(장정룡 : 강릉대 교수)

天 祭

1 伊豆 田代川文 和 村支組 天祭 山白太 1

(真奈川川文：瀬東井)

IS 伊豆 田代川文 和 村支組 天祭 山白太 2

(真奈川川文：瀬東井)

IS 伊豆 田代川文 和 村支組 天祭 山白太 3

(真奈川川文：瀬東井)

IS 伊豆 田代川文 和 村支組 天祭 山白太 4

(真奈川川文：瀬東井)

太白山 天祭壇의 歷史성과 文化財的 位相

任 東 權

(文化財委員)

1. 重要民俗資料 및 保護區域 指定事由

太白山 頂上의 天王壇, 將軍壇, 下壇은 다음과 같은 特徵이 있어 重要民俗資料 및 保護區域을 指定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판단됩니다.

① 太白山이란 山名은 일찍부터 神山으로 信仰되어 檀君神話에도 등장하거나와 江原道太白山은 新羅五岳의 하나로 神聖山으로 여겨왔고, 新羅逸聖王5年(AD. 138) 10月에는 王이 巡祀하는 등 神山으로 設定되어 있었다. 따라서 太白山神壇과 神祭의 歷史는 悠久하여 民族宗教史研究의 貴重한 資料이다.

② 太白山神祭는 國王이 親執한 것으로 미루어 國家大事가 祈禱되었을 것이며 李氏朝鮮朝까지 地方守令들에 의해서 管掌되었으며 國民들의 信仰處로서도 推仰되어 왔다. 지금도 地方官長 儒生 大倮敎人 巫覡遠近 住民들의 致誠하고 祭儀하는 神域으로 여겨지고 있다.

神聖山이란 觀念은 太白山뿐 아니라 그 東쪽 支脈인 頭蛇山과 五十井山一帶에 까지 擴散되어 廣域에 이르고 있다.

③ 太白山頂의 天王壇, 將軍壇은 國內最大規模의 積石神壇으로 原型을 잘 保存하고 있어서 文化史的 價値가 크다. 下壇까지 一直線으로 三個의 積石壇이 神域을 이루고 있어 古代民俗信仰을 研究하는데 所重한 民俗資料이다.

④ 近來에 觀光붐으로 觀光客, 登山客이 急增하여 毀損될 가능성이 있어 그 保護가 時急한 實情이다. 따라서 重要民俗資料로 天王壇, 將軍壇, 下壇을 指定하고 그 一帶를 民俗保護區域으로 指定하여 오랜 歷史가 있는 神域을 保存해야 한다고 思料됨.

2. 太白山과 天祭壇의 位置

太白山은 江原道 太白市所道洞80번지와 穴洞山87-2에 頂上이 位置하며 東徑 128° 25, 北緯 37°6에 있어 높이는 1,567m이다.

東國輿地勝覽 三陟都護府 太白山條에 보면 「在府西一百二十里 新羅時北岳 載中祀又見慶尚道安東府及奉化縣」이라해서 지금은 江原道에 속하지만 新羅時에는 奉化縣에 소속되어 있었다.

太白山頂上에 올라가려면 太白市에서 堂골 廣場까지는 아스팔트道路가 있어 車로 갈 수 있으나 여기에서부터는 山길은 溪谷을 타고 約 4.5km를 徒歩로 2時間쯤 올라가는 코스와 太白市에서 白檀寺까지 車로 가서 登山길 約 4km 1時間 40分쯤 걸리는 두 登山路가 있다.

堂골에서의 길과 白檀寺에서의 길은 中途에 반재에서 合流하게 되고 반재에서부터는 比較的 平坦한 山길이다. 堂골에서 반재로 올라가는 길은 溪流를 따라 峻한 길이 고 途中에는 積石塔과 岩下의 祈禱處가 여러곳에 散在해 있어서 太白山이 民俗信仰에 있어서의 神山으로 여겨지고 遠近사람들에 의해서 聖地로 認識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번 調査次 登山時에도 서울에서 왔다는 巫女二人이 野宿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巨岩下에 촛불을 밝혔던 자리, 白紙나 五色帛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곳, 禁줄이 쳐있는 巨樹를 도처에서 볼 수 있었다.

반재에서 부터는 비교적 平坦한 길이 고 土壤이 좋아서 樹木이 잘 자라고 있었다.

頂上에서 5百m쯤 아래에 萬鏡寺란 山寺가 있고 境內에 龍井이란 이름의 우물이 있는데 海拔 1,500m의 高地인데도 水量이 豊富해서 頂上에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많은 물이 솟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은 물이 용출하고 있었다. 아무리 旱魃이 계속 되어도 아직 마른적이 없다고 하니 理解하기 어려웠다. 龍井물이 흘러 漢江에 이르기 때문에 漢江의 水源이라 말하고 있었다.

龍井에서 約 5百m를 올라가면 太白山頂上에 이르고 天王祭壇이 자리잡고 있다. 天王堂 뒷쪽 3百m지점에 將軍壇이 있고 장군단과 天王壇의 一直線에 天王壇앞의 廣

場 낭떠러지 아래의 숲속에도 積石壇이 있어 세 積石壇은 연관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太白山은 白頭大幹의 中樞에 位置해서 群小의 山峯을 거느리고 있어서 四方에 視野를 가리는 것이 없어 眺望이 拔群할 뿐 아니라 여러 江河의 發源地가 되고 있다. 龍井은 漢江의 發源으로 國土의 中部를 가로질러 서울을 거쳐 黃海에 이르고 太白山市內에 있는 黃池(一名 天潢)은 洛東江의 源泉으로 南으로 흘러 嶺南一帶를 적시고 金海에서 南海로 흘러가고, 五十川 또한 太白山에서 發源하여 東海로 들어가고 있으니 太白山은 東西南의 三海에 이르는 水源을 이루고 있다.

太白山은 嶮山이 아니라 傾斜도가 느린 雄山으로 土壤이 좋아 土山이며 樹木이 잘 자라며 山이 높아 四季節의 景觀의 變化가 뚜렷해서 찾는 사람이 많다. 頂上에 가까울수록 高山植物이 自生해서 봄철의 진달래, 철쭉, 가을의 丹楓, 그리고 朱木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3. 太白山 天祭壇의 歷史

古代人들은 太白이란 말을 즐겼는듯 三國遺事에도 세곳에 記錄되어 있다.

古朝鮮條에 三千徒를 거느리고 太白山의 神壇樹 밑에 내려왔다(雄率三千 降於太白山頂 神壇樹下)고 하여 太白山이 등장하는데 이 太白山은 妙香山이라 註하고 있으므로 지금의 江原道太白山은 아니다.

또 靺婁 渤海條에는 三國史를 인용하여 고구려의 남은 百姓들이 떼지어 북으로 가서 太白山下에 모여 나라를 세워 渤海라 했다. (高麗殘孽類聚 北依太白山下 國號渤海) 新羅古記에서도 같은 記錄이 있다고 하였으니 여기에서의 太白山은 渤海의 建國地인 白頭山을 中心한 地域의 太白山일 것으로 생각된다.

三國遺事の 慈藏定律條에 慈藏이 太白山을 찾아가서 큰 뱀이 나무 밑에 서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이곳이 葛蟠地란 石南寺(淨岩寺)를 지었다. (藏往太白山尋之 見巨蟒蟠結樹下 謂侍者曰 此所謂葛蟠地 乃創石南院)고 하는바 位置로 보아 지금의 太白山에서 南으로 내려와 月城이나 蔚州에도 太白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太白山이란 神聖을 뜻하고 信仰의 대상으로 太白山은 여러곳에 所在했던 것으로 判斷된다.

江原道の 太白山이 神山으로의 記錄은 三國史記 卷32 雜志 祭祀條가 처음이다.

三山五岳已下名山大川 分爲大中祀……

五岳, 東吐含山 南地理山 西鷄龍山 北太白山

新羅에서는 三山五岳을 神山으로 섬기는 風俗이 있었는데 太白山은 新羅의 北方에 있는 鎮山으로 中祀의 禮待를 했고, 國家에서 奉祀하는 天神과 山神祭를 지내는 名山으로 소중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高麗史 卷104 列傳卷17 全方慶傳에 의하면

王(金方慶)遣子 恂爲太白山祭告使라 하였고 同書卷122 列傳卷35 李淑傳에 李淑 小字福壽平章郡人 母太白山巫女라 하였으니 高麗時代도 나라에서 太白山神을 제사했고 巫女도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山神信仰은 오늘날까지 傳承되어 있거니와 世祖實錄 世祖2年 3月條에 本朝海讀名山大川之祀 皆倣三國及前朝之舊라 하여 三國時代의 遺俗이 高麗朝, 朝鮮朝에 繼承되고 現代에 이어지고 있음이 認定된다.

太白山이 神山이란 認識이 이미 新羅時에 있었거니와 文獻備考8의 岳海讀山川條에

○ 新羅(7代) 逸聖王五年(AD. 128)十月 王北巡祀太白山

○ 新羅(15代) 基臨王三年(AD. 300)至牛頭州(今 春川)望祭太白山란 記錄이 있다.

逸聖王이 北方을 巡廻하여 太白山을 祭祀한 것은 太白山神을 國家에서 封定한 神이기에 王이 몸소 奉祀했던 것이며 基臨王은 太白山까지는 가지 못하였으나 그냥 通過할 수가 없어 멀리 春川에서 望祭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먼곳에서 望祭한 것은 太白山까지 가지 못할 형편에 따라 略式으로 奉祭한 것이고, 略式으로나마 하지 않으면 안되었기에 望祭한 것이니 太白山神에 對한 認識이 깊었음을 알 수가 있다.

太白山을 神山으로 여기는 생각은 太白山史庫의 設置에서도 알 수가 있다. 國家에서 所重文籍을 保管하기 위해서 海印寺, 江華島, 星州, 全州, 妙香山, 五台山,

赤裳山, 太白山 등지에 史庫를 두었다. 國家의 記錄을 兵火로부터 禍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所謂 「兵火不入地」에 史庫를 두어야 했으니 太白山도 그 中の 하나이었다. 深山幽谷의 神山임에 山神의 加護로 兵火가 없다는 생각에서 太白山이 選定된 것이리라 판단된다.

太白山과 그 一帶가 神山이요 靈地라는 淨土信仰은 現地에 가보면 切實히 느낄 수가 있다. 前述한바 堂골에서 太白山頂上을 向하는 登山길 溪谷一帶에는 積石塔壇이 散在해 있어 巫覡과 祈禱者들이 野宿하면서 致誠을 드리는 祈禱處로 되어 있고 萬鏡寺入口의 서낭石壇에서부터는 嚴格한 禁忌가 있다. 함부로 樹木을 꺾지 못하고 大小便을 못하고 不淨타는 言行을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不淨한 짓을 行하거나 不淨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入山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頂上의 祭壇에서는 더욱 謹慎 自肅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太白山은 頂上의 天王壇은 물론 1km쯤 거리에 있는 文殊峯頂上에도 聖域이 있고 太白山의 支山인 頭陀山一帶는 역시 聖地로 民俗信仰의 對象으로 되어 있어 特히 五十井에는 信徒들에 의해서 積石壇이 數百個나 있어 全山이 信仰處로서의 壯觀을 이루고 있다.

太白山에는 天王壇을 비롯하여 山下에 檀君聖殿이 있어 官員, 儒生, 有志, 住民, 大宗教人들에 의해서 奉祀되고 있으며 端宗碑閣도 있어 太白山이야말로 天神과 巫俗神과 帝王神들이 集結되어 있는 곳이기도 해서 信仰的 多樣性이 共存되고 있다.

太白山은 靈山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信仰하고 있으며 日帝時에는 獨立을 갈망하는 志士들에 의해서 獨立祈願祭를 지내고 受難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단기 4282年(1949)에 三陟北坪의 北三國民學校長이었던 崔翼漢의 手記에 의하면 解放 約 5年前(1940)에 太白山頂 天王壇에서 大韓獨立을 祈願하는 祭儀를 舉行하였다해서 日警에 의하여 責任者 尹尚明을 비롯하여 李洛林 崔翼漢은 實刑을 言渡받았고 崔道漢 崔敬漢등을 심한 取調의 後遺症으로 死亡하였다고 하며 당시 使用하던 祭器등 모든 物品을 證據物로 京城地方法院에 압수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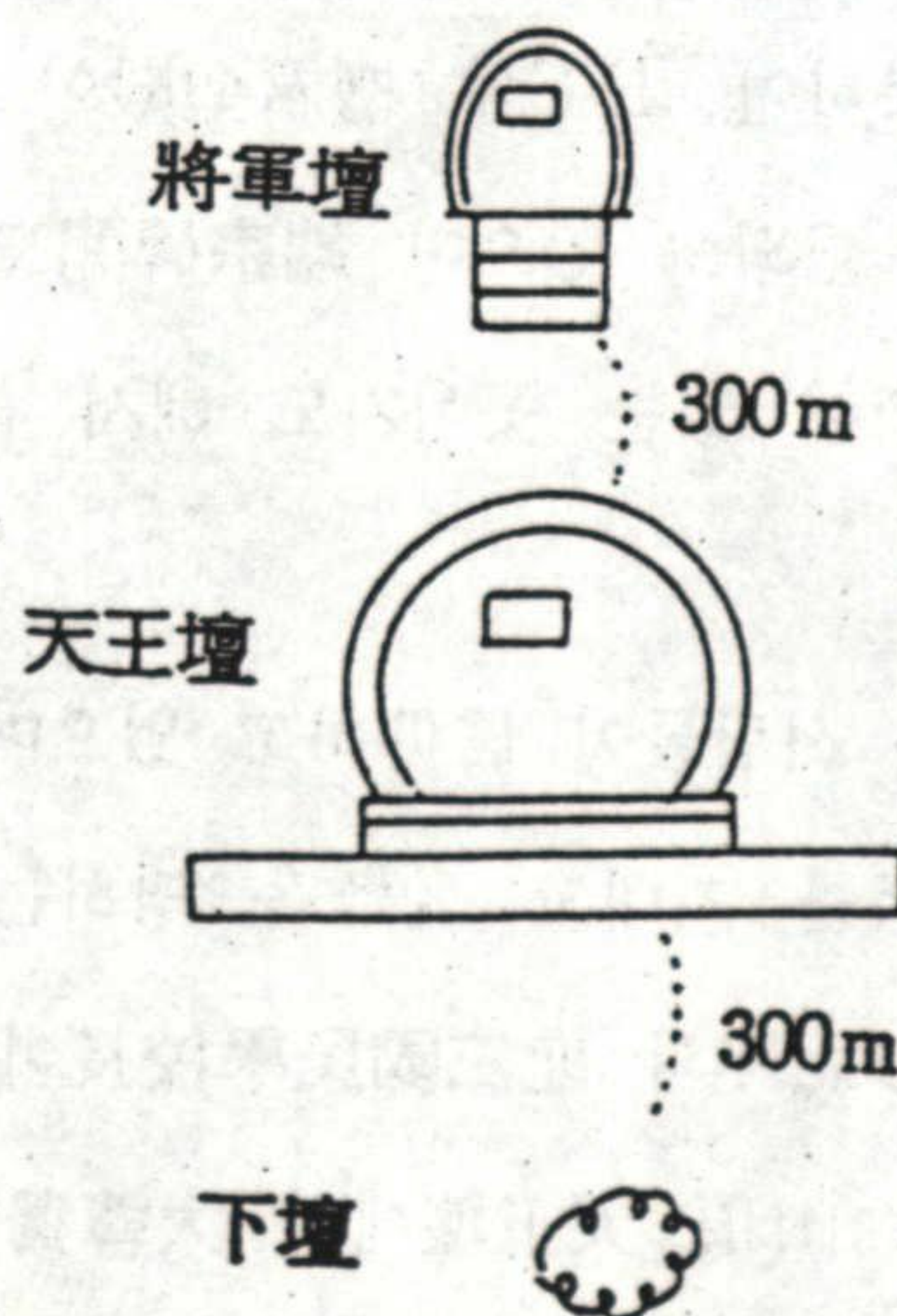
4. 太白山 祭壇의 形態

A. 天王壇

太白山頂上에 있는 天王壇은 一名 天王堂, 天王神壇(堂), 天王祭壇(堂), 天祭壇(堂), 太白山訶라 부르기도 해서 天王을 祭祀하는 壇 또는 堂이라 불려지고 있다.

壇은 흙이나 돌로 平地보다 높이 쌓고 祭儀의 장소로 삼는 곳이 있어 堂은 집이나 樓閣의 경우도 있어 神聖處로 祭儀를 目的으로 만들어진 집을 말하나, 집은 없어도 神의 居處 또는 神祭의 場所를 말하는 일도 있다. 土壇·積石壇 또는 숲이 울창해서 神處로 여기는 곳이며 神祭의 壇이나 堂집이 있는 곳을 堂이란 이름으로 汎稱하는 경우도 있다.

全國에는 수많은 壇·堂이 散在해 있는데 太白山頂의 天王壇은 積石壇으로 되어 있다. 頂上에는 넓은 廣場같은 平地가 있어 南向해서 天王壇이 있으며 天王堂 後方 3百m地點에 將軍壇이란 積石壇이 있고 天王壇 앞 廣場의 南쪽 아래에 또 하나의 積石壇이 숲속에 파묻혀 있다. 이 세 積石壇은 北에서 南으로 一直線上에 配列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상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位置圖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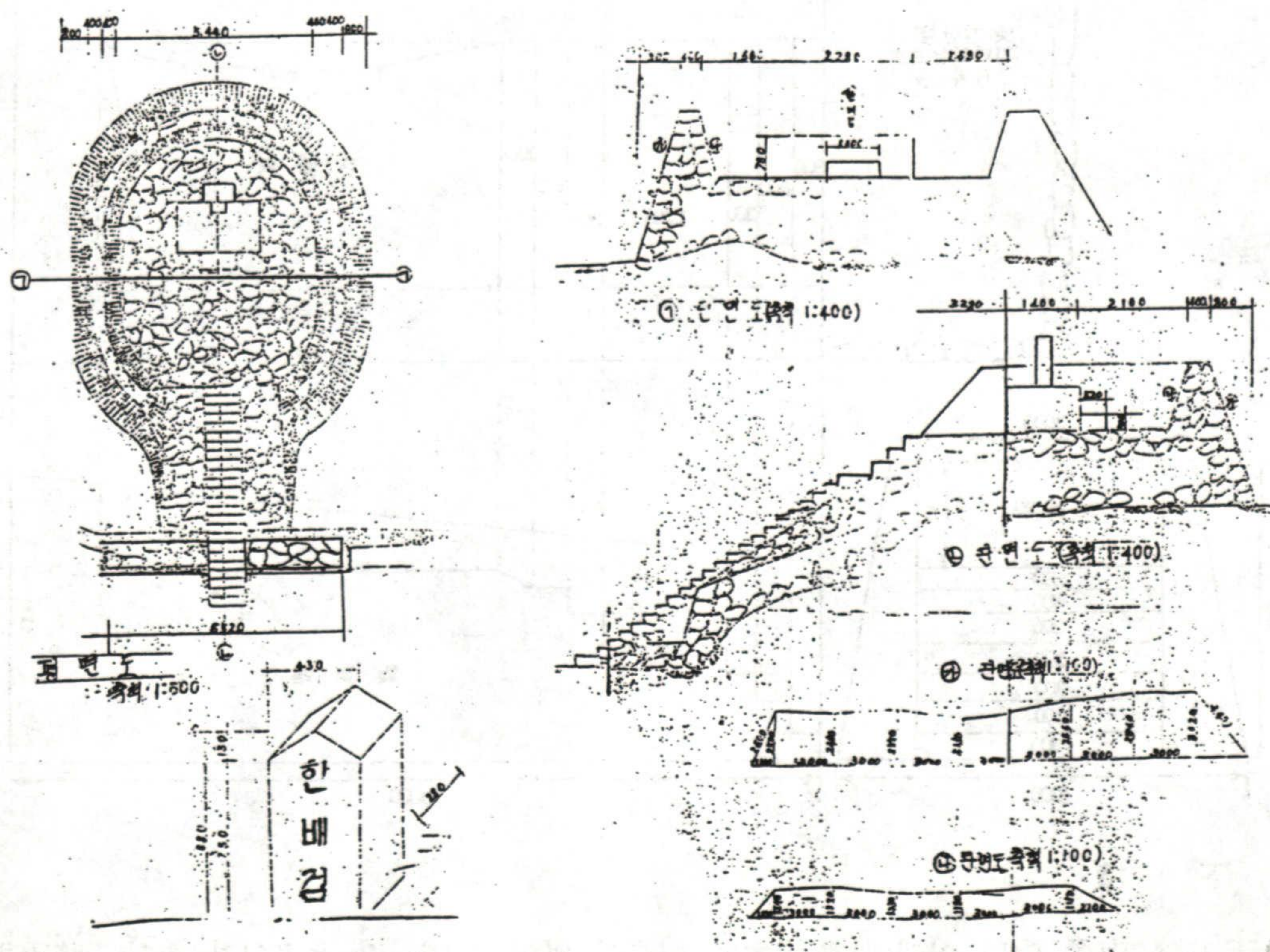


天王壇은 海拔 1,561m에 位置하여 自然石 片麻岩으로 쌓아 졌으며 둘레 27.50m, 높이 2.40m 幅은 左右 7.36m 前後 8.26m의 약간 橢圓形의 圓形祭壇이다.

南쪽에 石階段으로 되어있어 石壇에 올라갈 수 있고 壇上部에는 1.40m, 四角의 세멘트祭壇이 있고 「한배검」이라 陰刻에 朱塗한 立碑가 세워져 있다. 원래에는 石壇이었던 것을 大宗教徒들에 의해서 20年前에 檀君을 祭祀하는 聖地化하는 過程에서 세멘트壇과 立碑가 세워진 것이다.

檀紀4282年(AD. 1949)에 撮影된 사진에 의하면 세멘트壇이나 한배검 立碑는 없고 祭壇위에는 祭官만이 올라가 陳設獻酒 讀祝했고 一般參禮者들은 祭壇아래에 堵列해 있었다. 當時의 記錄에는 石壇이 九段이었으므로 九段塔이라 하였으며 주위에 33天 28宿旗를 꽂고 壇中央에는 太極旗와 九星旗(一說에는 七星旗)를 세웠고 祭物도 九種이었다고 한다.

天王壇의 實測圖는 다음과 같다. (太白市에서 實測한 것임)



B. 將軍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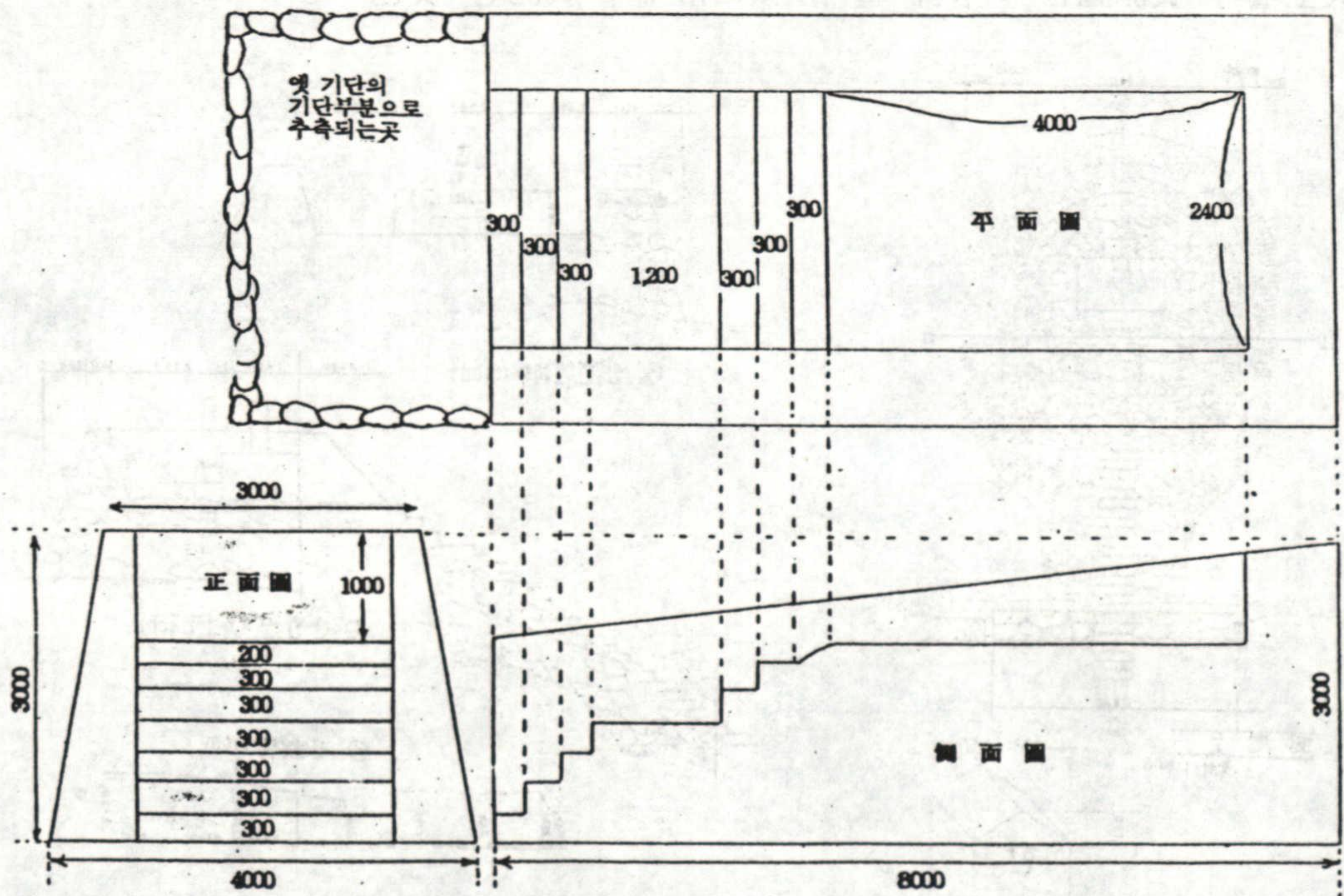
將軍壇은 天王壇 뒷쪽 北方으로 3百m지점에 있어 높이 約 2m, 둘레 20m의 橢圓

壇으로 石材는 天王壇과 마찬가지로 自然石 片麻岩이다. 南쪽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階段으로 되어 있으며 七段까지는 確認되었으나 一部の 破損이 있었다.

石壇의 東部쪽에 若干의 改修의 흔적이 있었으나 天王壇보다 積石壇으로서는 原型을 갖추고 있었다. 天王壇에서는 每年 開天節에 祭祀를 지내고 있어 數百名이 雲集해서 舉行하고 年間 數萬名の 登山客들이 오르내리며 또 수시로 巫覡들이 致誠者를 거느리고 와서 壇上에서 고사를 지내고 있어 變形을 免치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將軍壇은 떨어져 있는 탓인지 찾는 사람이 적고 比較的 原型을 유지하고 있어 壇의 神聖性이 유지되고 있었다.

將軍壇의 實測圖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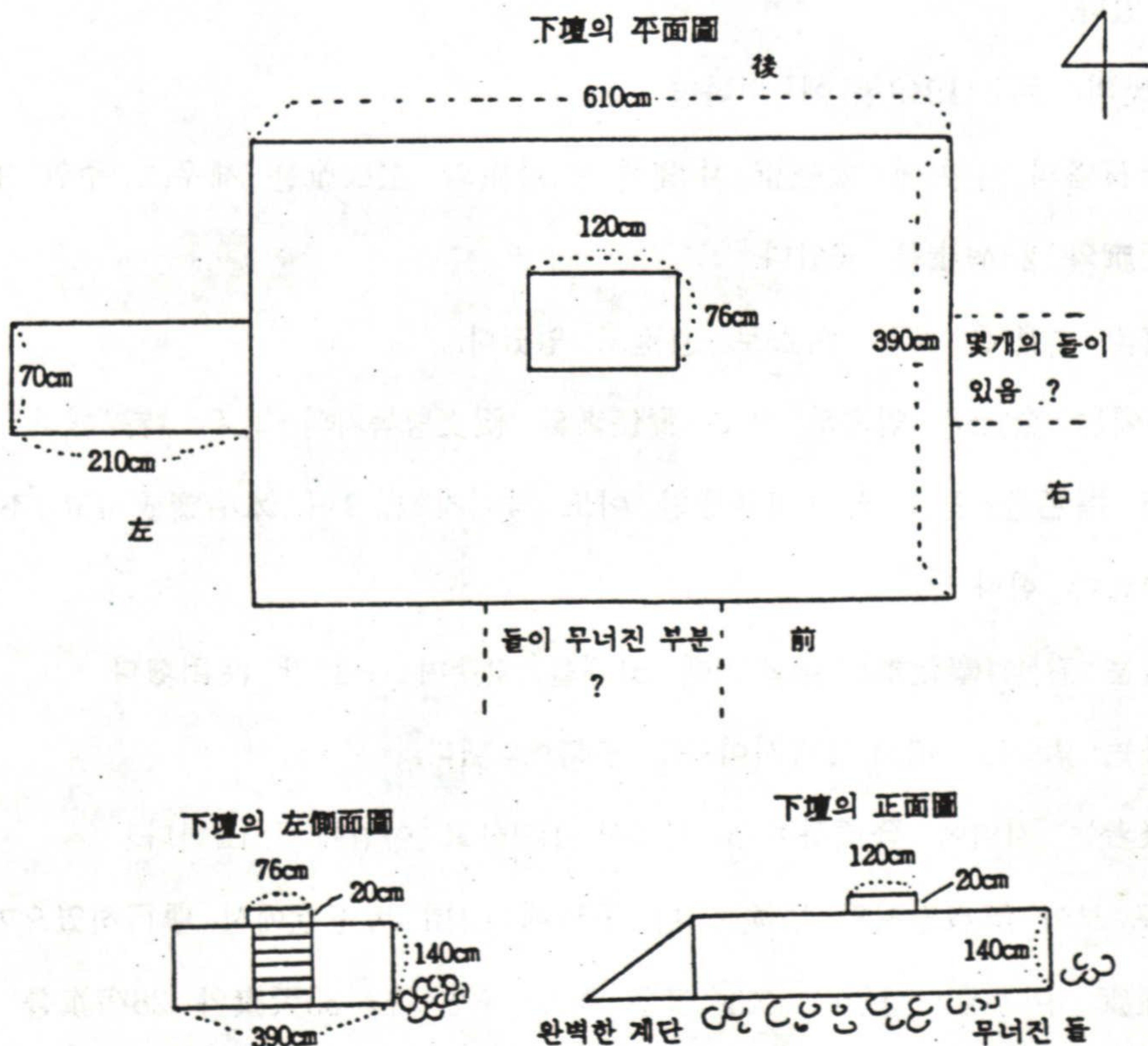


C. 下 壇

天王壇 南쪽 언덕 아래에 位置하여 이름이 없어 下壇이라 부르고자 한다. 將軍壇, 天王壇을 있는 直線上 南端에 위치해서 規模도 작고 高山灌木 속에 잘 보이지도 않아 그 機能은 喪失되어 찾는 信者도 없는 형편이다. 언뜻 보기에는 自然石을 쌓은

것 같으나 잘 살펴보면 天王壇쪽 언덕을 등지고 南向해서 登壇하는 石階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天王壇과 將軍壇이 규모가 크고 人工이 加해져서 잘 形態를 유지하고 있으나 下壇은 江原道の 山間에서 흔히 볼 수 있는 積石壇보다 若干 클 정도이어서 素朴한 山壇이란 印象이다. 山頂과 頂上바로 언덕 아래에 寒風을 막는 溫和한 場所에 壇이 있는것은 吐含山을 비롯하여 많은 例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將軍壇 天王壇과 함께 聯關된 機能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下壇은 天祭壇이나 將軍壇처럼 웅장하지는 못하나 實測圖는 다음과 같다.



D. 天王壇 祭儀

天王壇에서 天神을 祭祀하는 祭儀에 대한 記錄이 없어 詳細한 것은 알 수 없으나 文獻記錄과 手記 그리고 現在 舉行되고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東國輿地勝覽 三陟條에 다음과 같은 記錄이 있다.

在山頂俗天王堂 本道及慶尚道傍邑人 春秋祀之 繫牛於神座 狼狽不顧而走 曰如顧之神之不恭 而罪之 過三日府收 其牛而用之 名之曰退牛

이 記錄에 의하면 太白山神祭에는 祭需로 소를 썼으니 神座에 매어 두었다가 祭後 三日에 官府에서 거두었다고 하는바 祭儀는 官祭이었을 것으로 믿어지며 生牛를 神에 供儀했던 것이다. 神堂에 소를 매고 내려올 적에 뒤를 돌아보면 神에 대한 不恭이 되므로 뒤돌아보지 않는 禁忌가 있었다. 官祭로 거행되었으니 규모가 컸을 것이며 東國輿地勝覽이 發刊된 李氏朝鮮時代(成宗 17年 1486)에는 春秋로 奉祀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崔翼漢氏의 手記(1949年)에 의하면

- ① 九層石塔의 中央에 太極旗 中間에 七星旗와 玄武旗를 세우고 주위 360도에 33天旗와 28宿旗를 꽂았다.
- ② 祭官의 衣服은 모두 白衣로 道袍도 입었다.
- ③ 머리에는 金冠을 엄숙히 쓰고 責任者와 祝文낭독자의 冠은 特異했다.
- ④ 參祭 指名을 받은 者는 1年동안 이도 죽이지 않으며 沐浴齋戒하고 不潔하면 不參해야 한다.
- ⑤ 祭器는 春陽(奉化郡) 鑪器店에 81개를 맞추며 一回만 使用했다.
- ⑥ 奉祭는 밤 12時에서 1時사이 즉 子時에 했다.
- ⑦ 參祭者는 저녁에 登頂하여 山上에서 1泊하고 아침에 下山한다.

이상으로 보아 解放당시의 祭儀는 밤 子時에 山頂 天王堂에서 舉行하였으며 중앙에는 太極旗 中間에 七星旗, 玄武旗를 꽂고 주변에는 33天旗와 28宿旗를 바람에 펄럭이는 壯觀속에 參祭者들의 不淨 殺生을 피하고 엄격한 禁忌를 지키는 가운데 祭儀가 聖스럽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

祭物은 모두 生것으로 靑玉(山茶) 竹筍 靑松葉 金, 銀, 眞珠, 白米, 二種은 不明이나 九種을 九個씩 모두 81器를 陳設했다고 한다. 九種을 각기 九器씩 使用한것은

九層段과도 有關한 것으로 생각되나 더 研究되어야할 課題이다.

現行되는 祭儀는 主로 巫覡들에 의해서 進行되는 印象이다.

太白山에는 다섯堂골이 있다. 祭日에 巫覡들이 석당골에서 부터 날라리 팽과리를 치고 巫樂伴奏에 의해서 소를 끌고 올라가는데 途中에 개울에서 깨끗하게 沐浴시켜 不淨을 떨어낸다.

장승거리(미주둔지)에는 原來 장승이 있어서 생긴 이름인데 장승앞에서 기도를 하고 장승곶을 하고 不淨거리를 하고 불을 피워 不淨떨이 곶을 한다. 이때에 사람들은 몸에 물을 끼얹고 不淨을 씻어낸다.

반재에 이르면 여기에서 부터는 聖域에 들어가게 되므로 樂을 멈추고 조용히 올라 간다. 서낭당에 돌을 올려놓고 마음을 謹慎하며 말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 頂上 바로 밑에 있는 龍井물로 祭需를 淨하게 씻고 祭物을 준비한다.

頂上의 天王壇앞에 소를 매놓고 祭物을 陳設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下山을 한다. 「만일 뒤를 돌아보면 祭祀지낸 보람이 없다」고 傳한다. 때로는 소를 바치는 사람이 많아 소가 수십마리나 되어 「牛滿山」이라 했다고 한다. 以上은 現地の 郷土史家 金剛山氏의 提報이다.

太白山天王祭의 國封祭는 李氏王朝의 末期에 中斷되었다고 하며 그 後로 巫覡과 現地 住民들에 의해서 繼承되어 오다가 解放을 전후해서 大倭敎인들이 檀君聖地로 여겨 奉祀하게 되었으며 國家에서의 封定祭를 主張하는 地方有志들에 의해서 巫覡들과의 合同을 꺼려 10餘年前에 장승당골에 새로 檀君聖殿을 짓고 奉祀하게 되었다.

1989年 10月 3日에는 太白山 頂上의 天王壇에서 大倭敎인과 遠近住民에 의한 祭儀와 한쪽에서 巫覡들과 致誠人들에 의한 고사가 自由롭게 展開되고, 檀君聖殿에서는 地方官員과 有志들에 의해서 따로 檀君祭가 儒敎祭儀로 舉行되었다.

1989年 10月 3日의 天王壇에서 大倭敎인과 遠近住民 同參者들에 의해서 祭儀가 進行되었는데 그 祭順은 다음 笄記에 의해 進行되었으므로 移記한다.

선의식홀기(선儀式笏記)

○ 開儀式(도식이 홀기를 들고 소리를 가다듬어 부름)

◇ 선의식을 엽니다.

- ☐ 전의가 읊하고 主祀와 모든 예원과 참사하는 사람들을 인도함.
- ☐ 여러 사람은 모두 전의를 향하여 읊하고 제자리에 바로 섬

○ 參靈式(도식도 절함)

◇ 참령식을 행합니다.

- ☐ 주사는 神牀앞에 꿇어 앉음.
- ☐ 전의가 읊하고 奉香을 인도하여 주사의 오른쪽에 꿇어 앉음.
- ☐ 奉香은 天香을 받들고 주사는 天香을 피움.
- ☐ 奉香은 제자리로 물러가 섬
- ☐ 주사로부터 참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네번 절하고 바로 섬

○ 奠幣式

◇ 세가지 神幣를 드립니다.

- ☐ 전의가 읊하고 奉贊들을 인도하여 穀贊 絲贊 貨贊을 차례대로 주사에제 전함.
- ☐ 주사는 받들어서 곡지는 신상 셋째열 가운데에 絲贊는 그 왼쪽, 貨贊는 그 오른쪽에 드림
- ☐ 봉지들은 神幣의 뚜껑을 열어놓고 제자리로 물러 섬
- ☐ 주사는 그 자리에 꿇어앉고 奉香은 주사의 오른쪽에 꿇어 앉으
- ☐ 奉香은 天香을 받들고 주사는 청향을 피움
- ☐ 奉香은 제자리로 물러가 섬

☐ 주사는 네번 절하고 바로 섬

○ 進餐式

◇ 여러가지 天餐을 드립니다.

☐ 전의가 읍하고 봉찬들을 인도함.

☐ 天水는 신상 첫째열 가운데에, 天來는 그 왼쪽에, 天果는 그 오른쪽에 드림.

☐ 天飲을 신상 둘째열 가운데에, 天湯은 그 왼쪽에, 天菜는 그 오른쪽에 드림.

☐ 봉찬들은 천찬의 뚜껑을 열어 놓고 제자리로 물러가 섬.

☐ 주사는 그 자리에 꿇어앉고 봉향은 주사의 오른쪽에 꿇어앉음.

☐ 봉향은 천향을 받들고 주사는 천향을 피움.

☐ 봉향은 제자리로 물러가 섬

☐ 주사는 네번 절을 하고 꿇어 앉음.

☐ 참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꿇어 앉음.

○ 奏由式 (전의와 도식도 엮드림)

◇ 주유식을 행합니다.

☐ 전의가 읍하고 주유를 신상앞으로 인도하여 주사 왼편에 꿇어 앉음.

☐ 주사(초천관)로부터 참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엮드림.

☐ 주유가 주유문을 받들어 읽고 제자리로 물러가 섬

☐ 주사로부터 참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바로 섬

○ 奏樂式

◇ 한풍류를 아뢰입니다.

☐ 전의가 읍하고 주악을 인도하여 한풍류 세가락을 아뢰.

☐ 주악이 제자리로 물러가 섬

○ 願禱式

◇ 원도를 드립니다.

- ☐ 전의가 읊하고 예원을 선상 앞으로 인도하여 주사의 오른쪽에 꿇어 앉힘
- ☐ 주사로부터 참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엎드려서 깨닫는 말(覺辭)을 속으로 세번 읽음
- ☐ 예원이 원도를 드리고 제자리로 물러가 섬
- ☐ 주사로부터 참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바로 섬

○ 辭靈式

◇ 사령식을 합니다.

- ☐ 주사는 그 자리에 꿇어앉고 봉향은 주사의 오른쪽에 꿇어 앉음
- ☐ 봉향은 천향을 받들고 주사는 천향을 피움
- ☐ 봉향은 제자리로 물러가 섬
- ☐ 주사(終獻)로부터 참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네번 절하고 바로 섬
- ☐ 봉지와 봉찬의 두 사람이 모든 제기의 뚜껑을 덮고 전문을 닫음

○ 閉儀式

◇ 선의식을 마치었습니다.

- ☐ 전의가 읊하여 주사로부터 차례로 물러나게 인도함.

※ 閉儀式앞에 奉讀이 神位에 절하고 三一神誥를 봉독한다고 添記되어 있음.

※ 覺辭

神靈在上 天視天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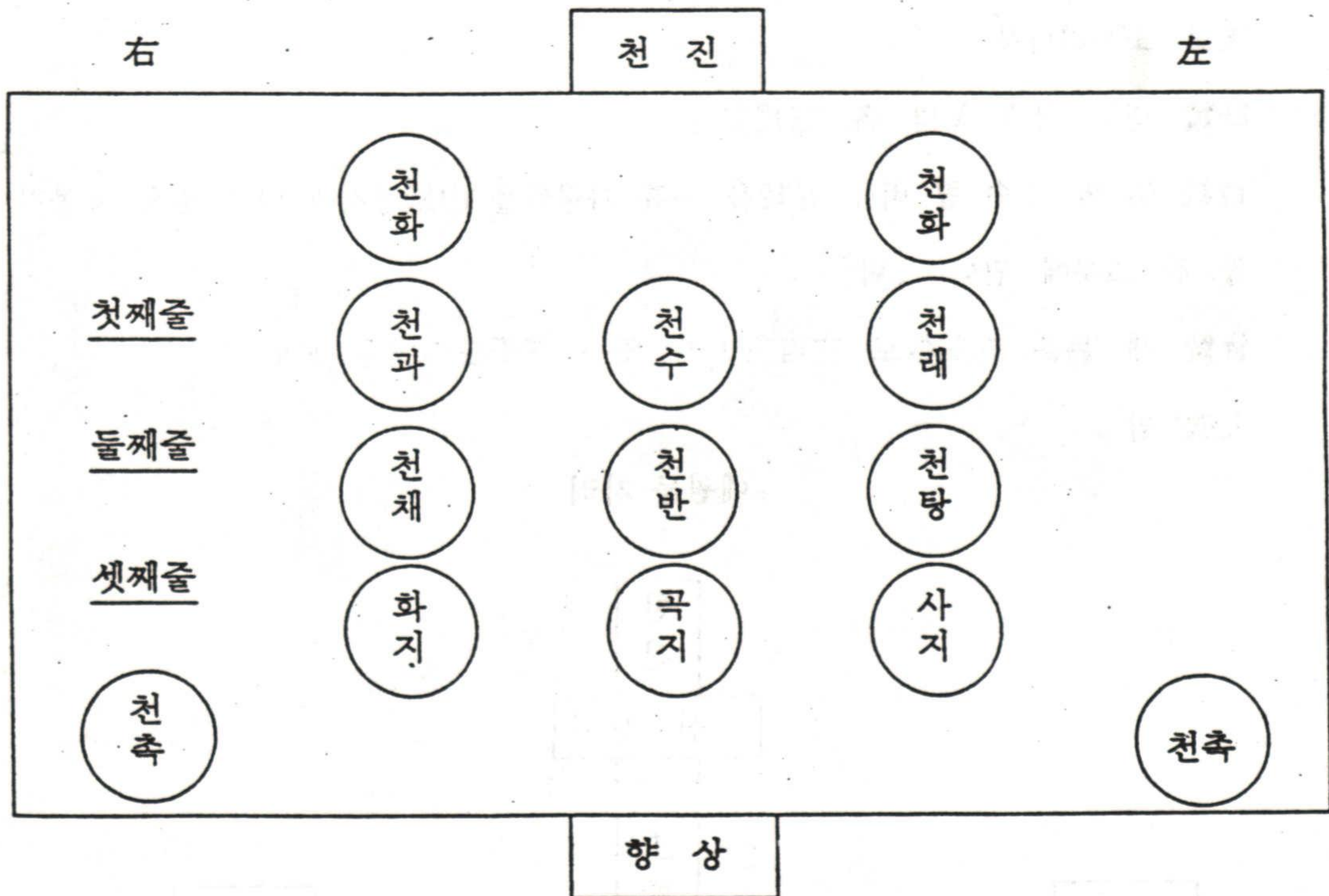
生我活我 萬萬世降

※ 三一神誥

(天訓)

제曰 元輔彭雨 蒼蒼非天 玄玄非天 天無形質 無端倪 無上下四方 虛虛空空 無
不在 無不容 無二

陳設圖(一名 신상 배치도)



祭 物 解 說

天水 깨끗한 물 한 그릇

天來 밀 五홉 가량을 백지로 만든 봉지에 넣어 그릇에 담아 드림

天果 배 3개

天湯 미역국

天菜 고사리나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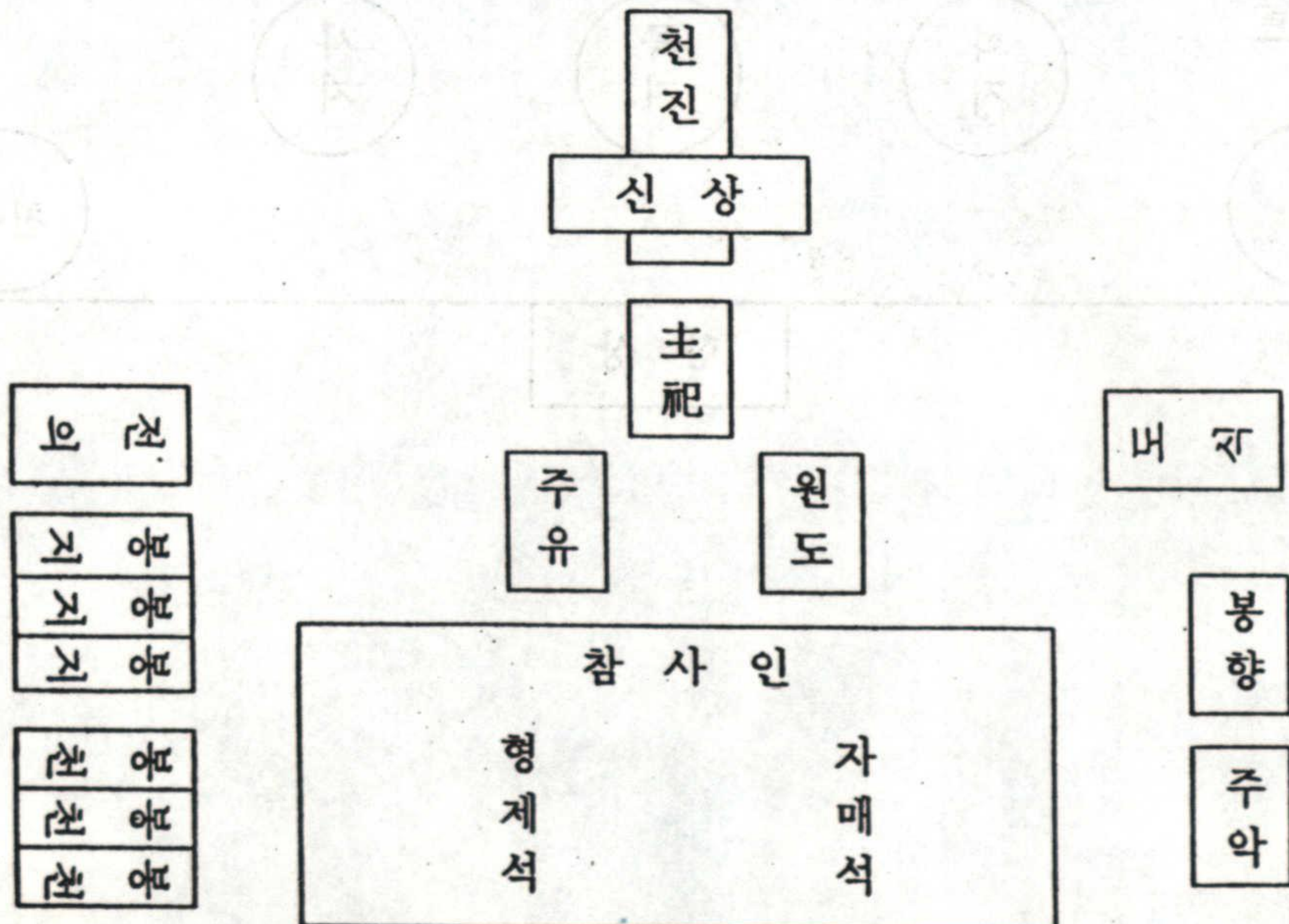
絲贊 명주 삼배 무명 各 三尺三寸

穀贊 粟 麥 수수 콩 벼등 五穀을 一홉 가량씩을 白紙봉지에 따로 넣고 五봉지를 한 그릇에 담아 드림

貨贊 새 돈을 三三數로 三百三十円 또는 三千三百円을 드림

天飲 밥

예원들 자리



檀君聖殿은 당골入口의 停車場에서 約 200m정도 숲속으로 들어간데 位置하

고 있다. 十餘年前에 太白山 天王祭에서 巫覡들이 위주가 되어 祭儀하는데 反對하여 따로 聖殿을 짓고 市長을 비롯한 官長들과 儒生 有志들에 의해서 儒敎 笏記에 따라 奉祀되고 있다.

三間殿閣의 中央에 「檀君聖祖 神位」라 쓴 位牌를 모시고 壁에는 椅子에 팔짱을 끼고 앉은 檀君畫像이 그려 있다. 상에는 栗柿와 사과 배 柑이 놓여 있으며 아래에 초, 香, 香爐, 잔이 놓여 있다.

開天節의 祭儀에는 地方官長이 獻官이 되어 笏記에 따라 進行되었고 祭儀가 끝나고 燒祝한 다음에는 參觀者를 합해서 約三百名이 廣場에 자리를 펴놓고 모두 함께 飲福하는 것은 壯觀이었다. 祭物로 잡은 큰 돼지 한마리가 이날도 다 消費되었다고 한다.

祭官 笏記(新舊二種) 祭祝文 陳設圖 配置圖 祭物解説은 다음과 같다.

祭官

初 獻 官	太 白 市 長	張 在 玄
亞 獻 官	太白警察署長	羅 相 克
終 獻 官	太白市教育長	權 和 相
執 札		李 煥
大 祝		朴 光 玉
典 儀		金 成 鎮
奉 官		金 炯 奎
奉 爐		朴 重 鎬
奉 爵		金 富 主
奠 爵		金 起 喆
謁 者		成 在 秀

檀君祭 笏記：別紙

祝 文：別紙

禮記集說

獻官及諸執事俱就外位○謁者○引大祝及諸執事
先就階間拜道○四拜○大祝及諸執事○詣盥洗位○
盥手○悅手○大祝及諸執事升○開扉啓牖○謁者○
引初獻官○升殿內○點視陳設○訖○還出○
獻官以下在位者皆四拜○鞠躬○拜○興○拜○興
拜興○拜興○平拜○行初獻禮○謁者○引初獻官
○詣盥洗位○搢笏○盥手○悅手○執笏○引詣尊
所○詣神位前○跪○三上香○奉爵升○舉爵酌酒
○獻爵○奠爵○獻官○小退跪○獻官以下在位者
皆俯伏○大祝升○東向跪○讀祝文○讀畢○訖
在位者皆興○搢笏○獻官四拜○執笏○謁者○
引初獻官引降復位○行亞獻禮○謁者○引亞獻官
○詣盥洗位○搢笏○盥手○悅手○執笏○引詣尊
所○訖○神位前跪○三上香○奉爵升○舉爵酌酒○
獻爵○奠爵○搢笏○獻官四拜○執笏○謁者○引
亞獻官引降復位○行終獻禮○謁者○引終獻官○
詣盥洗位○搢笏○盥手○悅手○執笏○引詣尊所○
訖○神位前跪○三上香○奉爵升○舉爵酌酒○獻

爵○與爵○增切○戲座拜○執觴○跪者○引於
 戲座引降復位○行飲酒禮○跪者○引三戲座○詣
 飲福位○定座○大祝以胙肉盛盤○詣戲座之左○
 奉爵以爵酒○詣三戲座之右○授爵○受胙○三戲座
 反之○呼飲○跪者引三戲座○引降復位○戲座以下
 在位者皆四拜○鞠躬○拜與拜無拜與拜與○平身
 ○行望燎禮○跪者○引初戲座○詣○望燎位○
 大祝以篚取祝○置手坎○可燎○跪者○引初戲座
 ○引降復位○跪者○引大祝詣亂事外○開讀
 閒辭○跪者及大祝詣亂事復詣階間拜位○
 四拜○以次出○禮畢

祝文

維

(若非吉日支)

德記

年歲次于支十月三日于支初戲座太由主

敬昭告于

德君聖祖

伏以

受命主降文白弘益人間濟世實世通冠三
 德被四海上律文時下敷水靈祐東扶遠金武
 後族肌膚撫民受在值定日謹以牲醴禮禱
 崇盛座祀式陳明高荷 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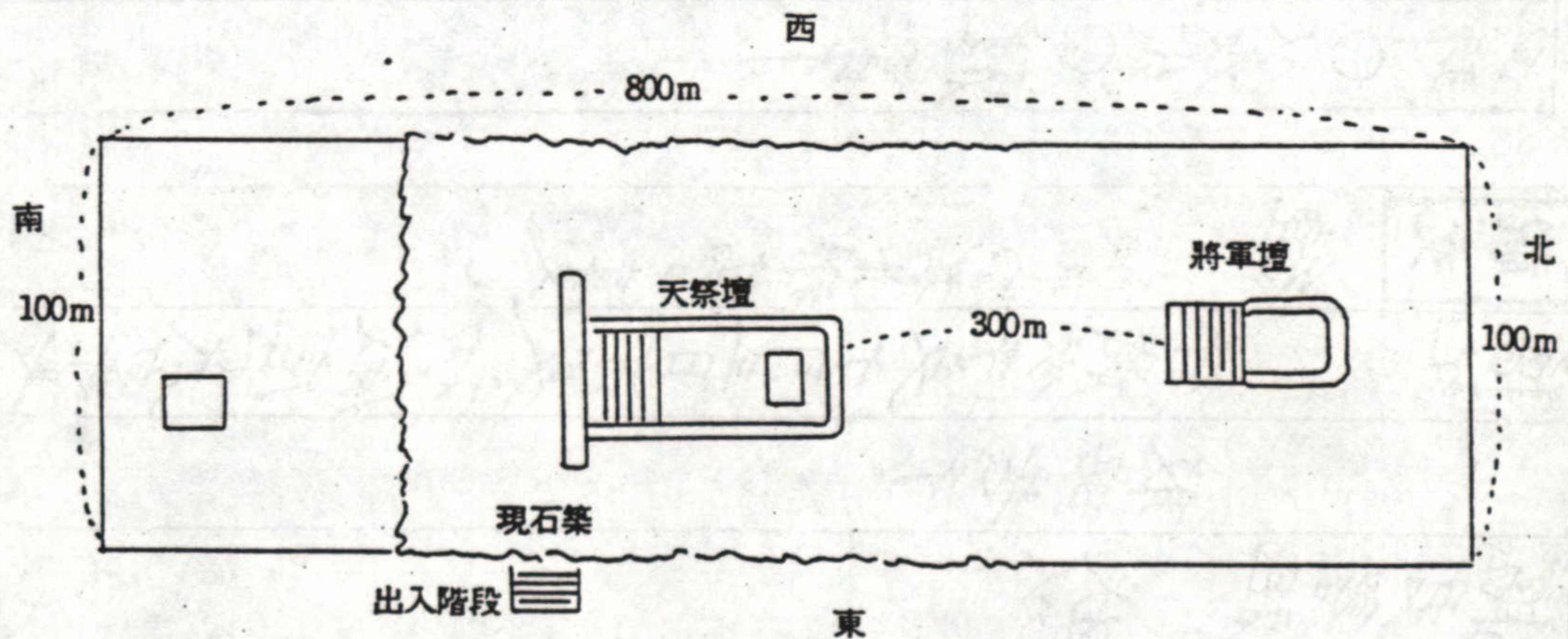
5. 保護區域의 設置

太白山 天祭壇은 保護區域의 設置가 필요하다.

太白山은 古來로 神山이요, 名山으로 알려져서 登山客의 數가 年間 萬名이 넘는다는 現地人들의 主張이고 근래에는 건강과 克己運動을 위해서 登山客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려도 祭壇은 聖域視해서 지금과 같은 상태를 多幸히 유지하고 있다. 天祭壇(높이 4m) 將軍壇(높이 3m)의 雄壯한 石壇의 모습을 破壞되지 않고 유지하려면 保護區域을 設置하여 保護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將軍壇에서 下壇까지 길이 8百m와 壇의 左右로 各 50m內를 保護區域으로 設定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三壇이 一直線에 있고 가장 中心이 되는 天祭壇의 左右로 50m地點이 높이 1m의 石壇으로 있어 이것을 기준으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太白山天祭와 檀君神話의 構造

김 선 풍

(중앙대 교수 한국민속학 회장)

무릇 한 민족의 민족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 민족이 갖고 있는 설화를 살필 필요가 있다. 그것도 건국이념이 깃든 개국신화를 살펴봄으로써 그 민족의 심성을 엿볼 수 있다. 알렉산더 알렌의 말처럼 신화는 은유적 서사시(mataphoric narrative)이다. 그것은 정제된 인간 경험의 정수(essence)이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리 풍부한 신화를 갖고 있지 않다. 그 내용도 소략하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해서 싱겁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알렌의 말처럼 그 단순한 이야기 형식에서 은유법적 표현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구조이고, 그 구조의 공통분모는 무엇인지 등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단군신화의 구조와 그 구조의 어구(語句) 속에 숨어있는 은유성을 찾아보고, 강원도 태백시(太白市)의 태백산 주위의 당골이름과 단군신화와 관련된 제반 신화소(神話素)나 신화재(神話材)를 통하여 신화시대의 민속상황을 추찰(推察)하고자 한다.

한국신화, 그것은 한국인 태초의 시요, 역사요, 원초적 심성이다. 그것은 태극사상(太極思想)일 수도 있다. 태극은 음양으로 나뉜다. 음양의 철리는 강한 문화의 체계를 만들어 온 강력한 에너지 였다.

하늘에 천신(天神)인 환인이란 분이 있었다. 그에게는 서자인 환웅이 있다. 그는 늘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여 내려가 널리 그의 뜻을 펴고자 했다. 드디어 그는 천신

(天帝), 곧 하느님의 허락을 받고 이 세상에 하강한다. 그가 내려온 곳은 산의 정상 신단수 밑이다. 3천 무리를 거느리고 내려와 신시(神市)를 건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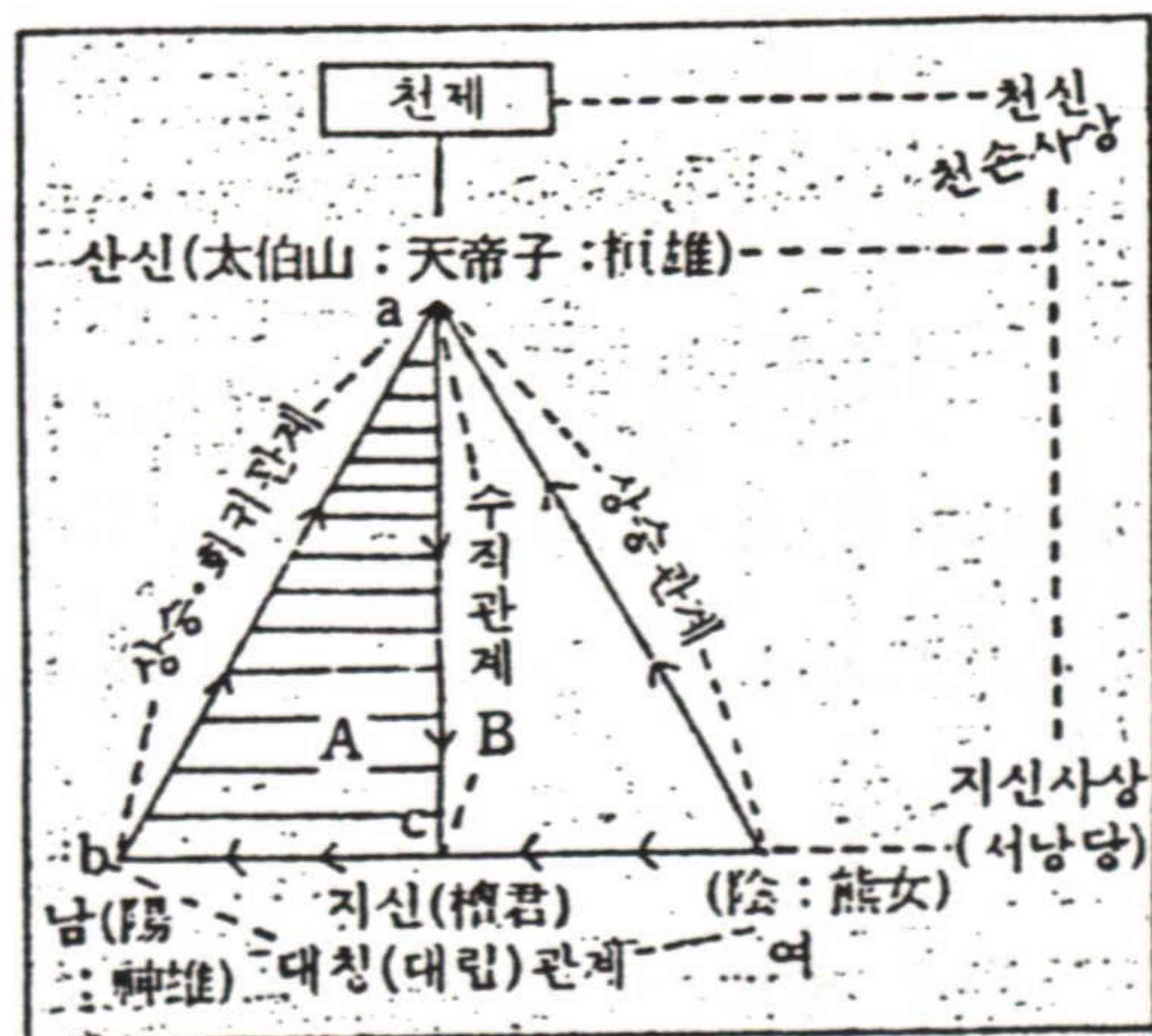
그러나, 그에게는 아내가 없었다. 때마침 인간이 되고자 하는 호랑이와 곰이 시련대에 오르고, 드디어 시련을 극복한 웅녀(熊女)를 맞이하여 혼인을 한다. 거기서 낳은 사람이 단군이다.

우리는 우선 천상의 신이 하강했다는 것부터 유추해 보기로 하자. 천상의 신은 환인과 그의 서자 환웅이다. 이때는 환인과 환웅 둘 다 남성이므로 ++의 결합으로 양의 세계이다. 한국인의 천상계는 ++ = +의 양의 세계이다. 태양, 곧 햇님을 신으로 설정하고 있다. 신화의 세계는 암유적(暗喻的) 표현을 이용한다. 그것은 인간의 경험을 문학적으로 잘 정리시킨 것이다. 다음 단계로 환웅이 이 지상에 내려와 자식을 갖고자 하는 웅녀의 청을 들어주는 그 은유는 평범할 수도 있으나 그들보다 더 위대했던 무엇을 상징하기도 한다.

실상 신화가 서사성(narrative)을 안고 있는 이상, 거기에는 어차피 갈등과 그 해소가 있기 마련이다. 환인과 환웅 사이도 부자간이지만 갈등은 있어 왔다. 하필 지상을 탐내는 아들이 서자인 점도 그를 방증한다. 여러 아들 중 서자로 태어난 신분으로서의 갈등으로 하여 그는 다른 세상을 개척해야만 했다. 이 경우는 '주몽설화'와 흡사하다.

좀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 한국 신화의 구조를 도식으로 표시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설화에서의 대립관계의 연구는 설화에서 그 구성과 형성과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도표 1>

〈도표 1〉



신화는 남과 여의 접합에서 곧 양과 음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환웅이 산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환웅은 웅녀와 호녀 중 한 여인을 택해야 했다. 곰과 호랑이 둘 다 거느릴 수가 없는 사회이다. 결국 곰녀가 승리를 거둔다. 곰녀의 승리를 비단 하나의 곰, 그 자체로 보기도 한다.

특히 시베리아 일부 종족은 실제로 곰을 숲속에 사는 저희들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다. 그 가운데 '캣'족은 곰을 지상동물의 왕이라 믿을 뿐만 아니라 지신(地神) 그 자체라고도 생각하고 있다. 곰은 다만 사람과 다른 모피를 뒤집어 쓰고 있을 뿐, 그 겹질 아래는 사람과 똑같은 형체와 심혼(心魂)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곰을 원시적 감각을 탈피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곰은 다름아닌 무왕(巫王)인 단군을 낳은 무녀 '곰네'인 것이다. 신웅은 그렇다면 환웅을 뜻할까? 우리는 여기서 '웅(雄)'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웅은 수컷 웅자다. 굳이 웅이란 단어를 쓴 까닭은 남성의 상징, 다시 말해 박수무당을 상징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때는 그 표현도 단웅(壇雄)이라 하지 않고 신웅(神雄)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그 뜻이 '신(神)인 환웅'의 뜻이 됨직하다. 단군을 탄생시킬 박수(男巫)의 뜻을 그 속에 숨기고 있는 것이다.

위의 도식을 다시 정리해 보자. 천제인 환인은 태백산에 자기의 서자 환웅을 내려 보낸다. 환웅은 천제의 아들로써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리잡고 지상 최고의 신이 되어 신시를 건설한다. 결국 단군은 당시의 사제자이자 왕이었던 '박달나무 임금'이 된 것이다. 여기서도 '박달나무 단(壇)'자와 '제터 단(壇)'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壇)은 신성수(神聖樹)인 당목(堂木)을 뜻하고 있다. 당목이 있는 곳은 서낭당(城隍堂)이다. 우리 민족의 서낭당은 당(堂)이 먼저가 아니다. 당이전에 생수(生樹)인 큰 나무를 당목으로 삼아 제를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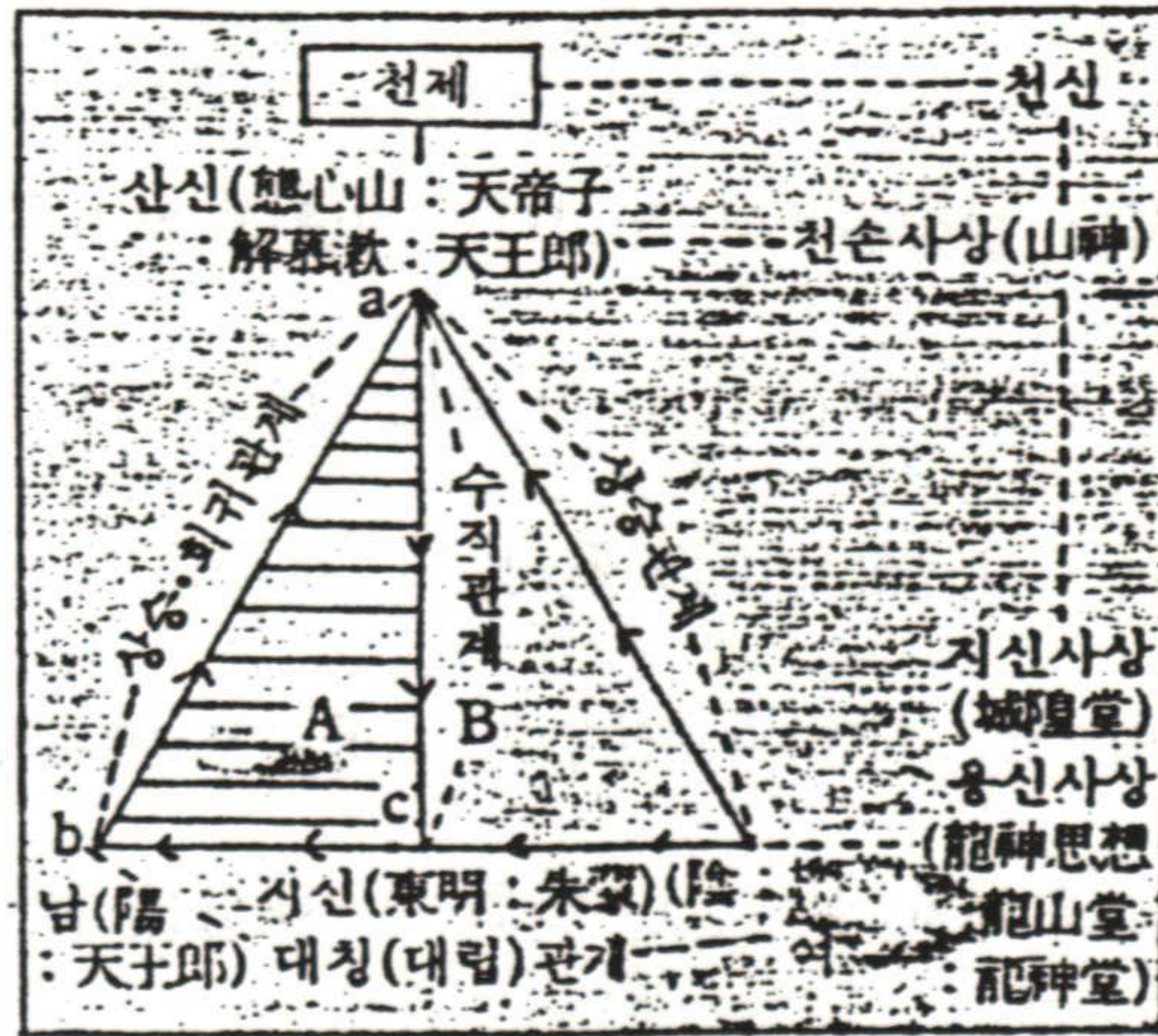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에 현존 영묘전(永墓殿)은 단종 임금을 모시는 서낭당이다. 그러나 원래는 서낭목 하나만 있었던 곳이다. (아직도 당목은 당(堂)뒤에 서 있다.) 그러니 신체(神體)는 당목이 되는 셈이다. 최남선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단(壇)자를 쓴것은 틀린 것이라고 믿고 있으나, 그것 또한 번역을 한 선인들의 심중을 그릇 이해한 결과이다. 이때의 단(壇)은 서낭당의 돌무더기를 뜻한다. 그러니, 단(壇)이 옳다. 단(壇)이 옳다고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 어차피 돌무더기 단(壇) 위에는 서낭나무인 박달나무 신목(神木)이 있을 테니 말이다.

단군은 그렇다면 지상의 신, 또는 땅의 신(君主·巫王)으로 해석함이 옳다. 도표 속의 지신의 뜻은 이같이 포괄적 의미로 해석함이 좋다.

오늘날 서낭당을 살피면 성황지신·토지지신·여역지신을 모신 곳도 있고, 토지지신만 모신 곳도 있으며, 성황지신만 모신 곳도 있다. 성황지신을 그 지방 개척신을 말하고, 토지지신은 그 마을 토지를 관장하는 신이요, 여역지신은 병을 관장하는 신이다. 천제의 명을 받고 하강한 환웅은 산에다 신시를 건설하고 지상신은 단군 무왕(巫王)에게 맡긴다. 단군은 사후에 다시 천신의 지위로 상승·회귀한다. 죽어서까지도 천신이 되어 하늘나라에서 후손들을 위해 음조(陰助)하겠다는 뜻이다.

다음은 주몽설화를 단군신화와 대비해 보기로 하자. 이들은 3대기(三代記)라는 점에서 동일한 도식이 그려진다. <도표 2>

〈도표 2〉



주몽신화도 단군신화와 궤(軌)를 같이 하고 있다. 수직관계로 내려온 환웅처럼 해모수도 하늘나라 천왕의 아들자격으로 역사적 시간속으로 들어온다.

천왕랑(天王郎)은 '버들꽃네(柳花)'를 얻기 위해 적지 않은 시련을 겪게 된다.

환웅이 남자의 기능을 하고 사라졌던 것처럼 천왕랑 역시 버들꽃네와의 사이에서 동명(東明)을 낳고 이내 초월적 시간으로 다시 사라진다. 역사적 시간 속에서 신화는 시작되고, 주몽 역시 많은 시련을 겪고 나서 사후에 신격화된다. 물론 주몽신도 산신이 되어갔을 것이다. 역사적 시간 속에서의 주몽은 동명의 뜻 그대로 '세상을 밝히는 임금'의 구실을 했고, 그야말로 '홍익인간'을 하기 위한 군주였다.

유화는 하신(河神)의 딸이다. 이는 지상의 신인 반신반인간(半神半人間)인 주몽이 무왕(巫王)의 자격으로 있다가 사후에 홀연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그 사당만 용산(龍山)이란 데 있다고 한다. 그러니, 분명 당 이름은 용산당 아니면 용신당일 것인즉 이는 용신사상과 지신사상의 습합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산악이 많은 한국 땅에서 나고 죽어야 하는 민족에게 산악숭배사상이 지배적인 점은 당연한 귀결이거니와, 우리 선조들은 산악을 모신(母神)으로 숭배했던 것이니 오늘날

어미산·할미산·악산(岳山)·자모신(慈母山) 등의 이름도 기실 그런 역사적 배경에서 생긴 것이다.

모신숭배는 도표에서처럼 상승관계에 놓인다. 그러나 유화는 주몽을 낳아주는 역할 뿐 아니라 사후에는 '유화성모(柳花聖母)'가 되었고 고구려 민중의 신앙의 대상으로 상승한다. 신라의 민중은 '알영성모(閼英聖母)'·'서술성모(西述聖母)'를, 가야의 민중은 '정현성모(正見聖母)'를, 고려의 민중은 위용성모(威庸聖母)'를 각기 숭배했던 것이다. 심지어 신라에는 호국의 삼녀신(三女神)인 내림(奈林)·혈례(穴禮)·골화(骨火)까지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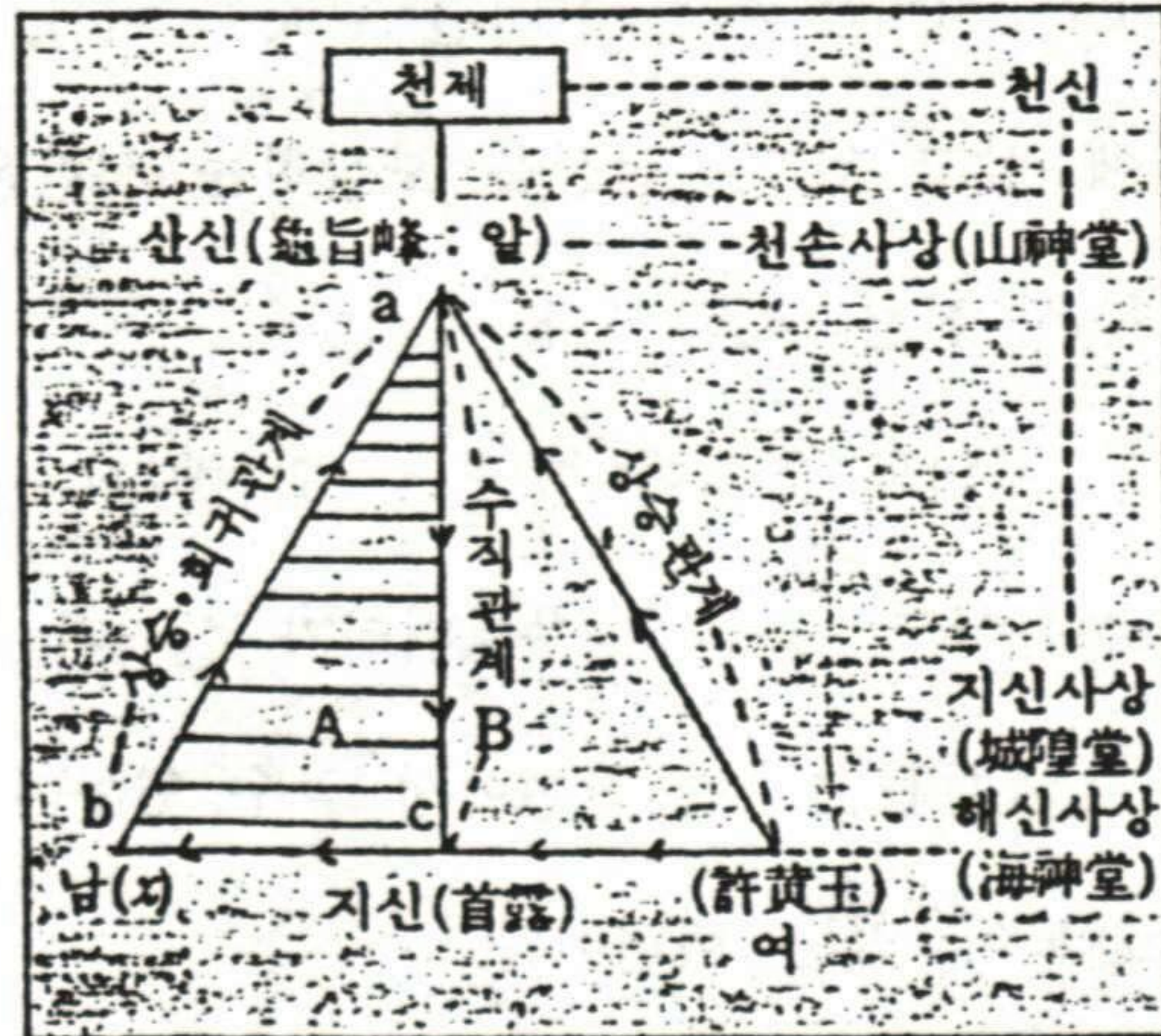
다만 단군신화에서는 웅녀가 '웅녀성모(熊女聖母)'가 되었다는 기록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상의 도표에서처럼 '웅녀(곰네)'도 호국신이 되어 웅녀성모로 숭앙을 받았을 것이다. 추측컨대, 단군신화의 웅녀도 무녀이긴 하지만 부족의 호국신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한국의 신화는 현재, 개념(synopsis)만 남아 있고 살이 없다. 인체(人體)로 치면 해골(skeleton)만 남아 있는 셈이다. 민속학도는 이들 신화를 면밀히 비교하면서 신화에 다시 원래의 살을 붙이고 재구성(再構成)하는 작업을 부단히 해야 한다.

그간 많은 학자들이 단군신화를 연구 했으나 웅녀를 무녀로 본 이는 없었던 것 같다. 또 그의 승천도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주몽설화와 수로신화의 구조로 인해 단군신화의 웅녀를 무녀로 볼때, 웅녀는 한국 무당의 시조 이룰테면 한국 최초의 무조(巫祖)가 되는 셈이다.

다음은 김수로대왕(金首露大王)의 신화적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도표 3〉



〈도표 3〉에서도 천제 → 산신 → 지신의 3분법은 동일하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남(男)이 없고, 산 정상에 구지봉(龜旨峰)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나 줄과 금보자기라는 단어가 나온다. 줄은 통과례 중 텃줄을 상징하고 있다. 금보자기에 싸여 내려오는 알은 그만큼 지존지중(至尊至重)한 분이라는 은유적 발상이다. 또 금씨(金氏)라는 뜻도 된다. 어쨌든 이 신화도 구지봉 정상에서 내려오는 천손의 자손임에는 변함없다.

알 중 가장 큰 알이 변해 수로가 된다. 수직으로 내려와 인간계에 머문다. 알의 신화는 남(男), 대(對), 여(女)라는 대칭관계, 곧 신화를 만드는 대립과 갈등, 시련 관계가 거세된다. 그러므로 지상의 신인 수로는 남 대 여라는 신화로서의 탄생의 갈등이 없다. 그저 수로는 허황옥을 맞아 아내를 삼게 되고, 다시 사후에 산신이 되는 변형된 신화소(神話素)를 갖고 있다. 허황옥 역시 국모였기 때문에 사후에 나라를 수호하는 정현성모(正見聖母)가 되었다. 허황옥은 바다 건너 먼 나라에서 온 외래자이다.

수평선 너머에서 물고온 문화, 이는 해신사상(海神思想)의 상징물로 보고자 한다. 일연은, 고려 11대 문종(1046~1083)때 김해 땅의 지주사(知州事)였던 한 학자가 쓴

〈가락국기〉란 책을 보고 옮겨 썼던 것이다. 마을 지도자 이름도 재미있게 표현된다. 산기슭 마을에 살고, 그곳을 지키는 이는 유천간(留天干)이요, 그 마을 명은 유천(留天)이다. 산꼭대기 부근에 살고 있고, 산신을 보살피는 사람은 신천간(神天干)이요, 그곳에 이룩된 마을 이름은 신천(神天)이다.

그들에겐 산신을 모시는 무녀도 있어야 했다. 신귀(神鬼) 마을은 산신을 모시는 무당이 집결해 있는 마을 이름이고, 그들중 우두머리가 신귀간(神鬼干)이다. “이제 대략 소략하게나마 실는다(今略而載之)”란 표현에서 알수 있듯이, 이 신화도 대강의 윤곽만이 〈삼국유사〉에 소개되어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대로 신화의 구연현장성(口演現場性)이 다음과 같이 시대로 격하면서 사라져 갔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

현장의 구연(performance) → 전사(轉寫 : transcription) → 번역(translation)
→ 개요(synopsis)

그리하여 서구의 이론가들은 오늘날 남아있는 텍스트(Text)는 개요만이 남아 있을 뿐이라는 이론을 내세운다. 구연 당시의 현장 상황은 물론 모두 없어졌거니와 변안과 번역 단계를 거치면서 긴 역사속에서 앙상한 해골만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스 뮐러의 신화설대로 ‘신화시(神話詩) 시대(mythopoe-icage)의 산물’이요, 그것은 보아스(Boas)의 말대로 ‘당대 문화의 거울(Mirror of culture)’이고, 그 문화의 구조물인 것이다.

수로탄생은 성격상 천자손계(天子孫系) 신화와 남방계 신화가 혼합돼 있는 구조물이다. 수로는 탄생이 천손계 하강임에는 틀림없으나 탄생시에 대립이 없었다. 그러나 갑자기 허왕옥이 아유타국(阿踰陀國)에서 오고, 외래자인 탈해가 해외로부터 나타나 임금자리를 빼앗으려 했다. 탈해가 수로왕에게 “나는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이곳에 왔노라”고 하니, “하늘이 나를 명하며 임금자리에 앉게 한 것은 장차 중국을 바로 잡고 백성을 편안히 하려 하심이니, 하늘께 받은 자리와 나라와 백성을 감히 너같은

외래자에게 내어 줄 것이냐”고 한마디로 거절하였다.

그에 탈해가 대꾸해 말하길 “그렇다면, 우리 술법 씨름을 해보자” 하거늘 왕은 “오냐, 그러자”고 응했다. 탈해는 알에서 낳은 인물이다. 그는 그 당시 일본에서 귀화한 알, 곧 태양의 자손이다. 그는 천손의 자손이었고, 큰 덕을 쌓았기에 결국 죽어서 동악(東岳)의 산신의 자리에 올랐던 것이다.

단군신화상의 태백산은 안변군 동 130리에 있는 현 묘향산을 뜻한다. 강원도 영월·삼척·정선과 경상북도 안동·예안·봉화 땅에 걸쳐 있는 태백산 또한 영산으로 유명하다.

태백산은 고신산(古神山)의 하나로 주위에 함백산(咸白山)이 있어 짝을 맞추고 있음이 흥미롭다. 주민들에 의하면 태백산은 남신산이고 함백산은 여신산이라고 한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산인데 남산 대 여산의 구별이 있다. 또 함백산 기슭에 자리잡은 정암사는 과거에는 여신을 모셨던 곳이라고 하니 가히 재래 종교와의 습합(習合) 과정을 짐작할만하다.

태백산 정상에는 태백대천왕지신(太白大天王之神)을 모시는 천제단이 있고, 바로 밑에는 원한에 간 단종대왕의 비각이 서 있다. 송강 정철도 단종이 이곳 산신이 되었다고 해서 이곳에 들러 비와 장승을 세워놓기도 했다. 그러면 몇몇 지명을 통해서 단군시절의 제의(祭儀)를 영상해 보기로 하자.

태백산에 들어서면 우선 지명 자체가 토속적인 냄새가 물씬 풍긴다. ‘수구막이’란 데가 있다. 그곳은 산신 심부름꾼인 수부신이 계신 곳이다.

산신제 때 무당이 굿을 했던 흔적은 남효온의 <추강냉화(秋江冷話)>에도 나타나 있다. “영동지방 주민들이 매 3, 4, 5월 중에 무당을 청해다가 산신제를 지냈다. 부자는 말에 태워서 먹을 것을 가져갔고, 가난한 자는 머리에 이고 그곳에 가 귀신석을 마련한다. 악기를 치며 3일간 실컷 놀고 배불리 먹고 나서야 하산(下山)했다”고 한다. 태백산정에 올라가면 넓은 마당이 있는데 이곳이 ‘백석평(百石坪)’이라는 고원이다.

즉, 이곳이야말로 제장과 무대 구실을 했던 신성소(神聖所)였던 것이다.

우리는 '백석평'이나 '태백'에 나타난 '붉(𨾏)'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미 최남선은 상세하게 '밝사상'에 대해 논급한 바 있다. 태백의 백(伯)은 백(白)으로도 박(朴)으로도 쓴다. 이때의 '붉'이란 '광명(光明)'을 뜻하고, 광명은 다시 '거룩한 존재'의 상징으로 발전한다. 태백산은 상대자인 함백산이 있다. 그 여신산마저도 '한(大 또는 太) + 붉산', 곧 '크게 밝은 광명의 산'이란 뜻이 된다.

다음은 '바디당골'이란 지명을 살펴보자. 이곳 '바디당골'에서 태백산신제를 지낸다. '바디'란 '붉은(光) + 디(데·곳·所)'가 합성된 단어다. 이것도 밝은 광명의 처소(장소)를 뜻한다. '바디당골'을 일러 '소도(蘇塗)당골'이라고도 하나 '바디당골'이 오래된 말이라고 한다. 어쨌든 이 당골이야말로 광명신을 모시는 당골이란 뜻으로 소도의 본체(本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다음은 '부정거리'라는 곳이다. 무속제(巫俗祭儀)의 중에는 '부정거리'(부정풀이)가 제일 먼저 시작된다. 이곳 태백산에서는 항시 연기를 피워서 부정을 가셔내고 제를 시작했다고 한다. 부정풀이를 했던 곳도 따로 있었으니 그곳이 '부정거리'이다. 바디당골은 신성소이기에 솟대가 있다. 이곳에서는 '짐대'라고 있다. 그간 짐대는 나루진(津)자에서 온 것으로 물과 관계를 지워보려던 학자도 있었으나 그 설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단군을 모실 때 어떤 제물을 썼을까? 또 그 제의방식은 어떠했을까? 필자는 '퇴우(退牛)'란 제의 행위를 그 일부분으로 보고 싶다. 주민들은 산신을 일러 그저 '백두옹(白頭翁)'이라고 한다. 백두옹이야말로 '백두천신', '백두(白頭翁)' 백두태백신(白頭太白神)인 것이다.

다음은 필자와 망경사 주지스님인 최종명 스님과의 대화이다.

[조사자 : 퇴우전설에 관해 모르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조사자 : 제를 지낼 때 소를 끌고 왔다가 마지막에 소를 놓고 도망가는 풍습이 있어요?]

소를 놓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산소를 그 자리서 쓰고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소를 친답니다.

[조사자 : 소를요?]

소를 쳐서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제사를 잘 받은 걸로 생각해서 그냥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조사자 : 머리를 쳐서?]

예, 어디로 넘어가느냐, 그것은 확인하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왼쪽으로 넘어가면 내려가서 일주일을 또 근신하고 제물을 새로 차려 올라 왔습니다.

[조사자 : 소를 다시 가져 왔어요?]

예, 소를 다시 가져왔죠. 삼국시대에는 통일의 염원을 세우기 위해서 무척 정성을 들였던 모양입니다.

[조사자 : 그것이 바로 퇴웁니까?]

예.

여기서 살필 수 있는 것은 당시 단군신전에는 소를 산채로 바쳤던 것이 아닐까 하는 점과 그 정성이 지극했으리라는 점을 추단케 한다.

이상에서 살폈듯이 단군신화는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방법론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崇山意識과 太白山 天祭

崔 承 洵

(전강원대 교수)

1. 緒 言

民族文化의 形成이나 民族意識의 構成에는 여러가지 雜多한 要素들이 作用하겠으나 그 要素들 中에서 主宗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 民族의 自然環境으로 이것은 그 民族의 思惟나 意識體系에도 密接하게 交關되어 진다. 며칠을 걸어도 山을 볼 수 없는 平原을 居住環境으로 삼고 있는 民族에게서 山神信仰이나 山祭意識을 생각할 수 없고, 바다가 없는 內陸을 生活 터전으로 삼고 있는 民族에게는 龍王神이나 海神의 存在 理由는 없다. 必要가 文化의 生成論理라면 條件은 文化의 方向論理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國土의 7割이 山으로 되어 있는 탓으로 이 山들은 우리 民族에게는 凡常한 生活環境으로만 存在했던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깊은 意味가 딸았고 그 意味는 畏敬의 意識으로 結集되어 信仰의 世界를 形成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山에의 信仰은 山神思想을 胚胎하기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山에 對한 思惟體系는 自然地理的으로 보았을 때는 白頭山이 하나의 凡然한 山에 지나지 아니하지 마는, 이러한 自然地勢 外에 觀念的 意味를 부여시키면 山이라는 形象的 뜻 보다는 靈峰이라는 觀念的 意味를 더 強하게 作用시킬 수도 있게된다. 山에 對한 이러한 畏敬心은 우리 民族의 土俗信仰으로 形象되어 山에 神堂을 짓게 하였고, 설사 神堂이라는 信仰의 當處는 없다 할지라도, 山을 祈求의 聖處로 여겨 우리나라의 名山치고 神堂이나 祈求處가 없는 곳이 없게 되었다.

우리民族의 山에 對한 이와같은 神聖觀을 或 人知의 啓發度나 文明의 開化度を 基準으로 삼아 그것을 尺度로 論議하려고 할지 몰라도 우리民族에 있어 山은 人知나 開化와 상관없이 原初意識에서 齎來 되어진 것이다. 그 하나의 例로 우리는 六堂 崔南善의 山에 對한 態度에서 엿볼 수 있다.

六堂이 白頭山에 關하여 쓴 글이 두편 있다. 그 하나는 “不咸文化論”이고 다른 하나는 “白頭山觀參記”이다. 前者는 文化의 母體나 文化傳擔論的으로 본 白頭山이고 後者는 그 命題의 “觀參”이 示唆해 주듯이 精神史的인 意味나 信仰的 뜻이 內在한 글로, 人知나 文明의 開化도와는 아무 關連이 없는 글이다. 文明社會에서는 山을 平地보다 높다는 自然地理的 解釋을 해야하고 그렇지 못한 社會에서만 山에 精神的 信仰的 意味 부여가 可能하다는 論理는 成立할 수 없다. 上記 六堂의 글에서 六堂의 생각이 설사 信仰的인데 까지 미치지 아니 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山은 觀念的으로 큰 뜻이 있고 이것을 信仰的 脈絡에서 볼때 우리의 土俗信仰과 그 軌를 같이 했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서 있어서 山에의 畏敬心은 그대로 信仰의 境地에 이르고 있고, 이 境地는 우리와 같이 生活環境이 山과 不可分の 關係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人和나 文明의 開化도와는 關係없이 觀念的 意味 부여도 不可避하게 되며 그 例의 하나가 앞서 말한 六堂이 白頭山을 본 態度이다. 山의 고장에서 사는 동안 自然發露的으로 생긴 山에의 畏敬心이 觀念的으로 接脈이 되어 있는 事況은 우리의 建國神話에서도 찾을 수 있다. 桓雄이 하늘에서 사람의 세상에 내려온 곳이 平原地가 아니고 太伯山頂이었고, 檀君이 移都한 곳도 白岳山이었으며 檀君은 죽은 뒤에 阿斯達의 山神이 되었다는 遺事의 記錄은 그 事實 與否야 어찌 되었던 山의 고장에서 살아온 韓國民族의 意識속에 자리잡은 山의 位相이라 할 것이다.

우리 國土의 大部分이 山이 아니고 平原으로 되어 있었다면 桓雄은 山頂에 下降하지 아니하고 平原에 下降 하여 平原으로 移都를 하였을 것이며 檀君도 死後 山神이 되지 아니하고 山神이 아닌 다른 神이 되었으리라는 것은 無理한 推論이 아니다.

以上은 生活環境이 人間意識에 어떻게 交關되어지느냐 하는 것을 살펴 본것이 거니와 이러한 것을 前提로 하였을때 山이 많은 곳인 江原道에서 生活한 이곳 사람들의 意識속에 山神에 關한 意識이 強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想到가 되는 일이나 오직 太白山만은 古記錄에 山神堂아닌 天王祠추로 나타나 있어 눈길을 끌게 한다.

江原道는 國土의 脊柱라고도 할 수 있는 太白山脈이 南北으로 縱走하고 있어 道域이 다 이 山脈에 의하여 뒤덮혀 있고, 이 山脈 가운데 金剛을 비롯하여 雪岳, 五臺, 頭陀, 雉岳, 太白등 이름 있는 山들이 連하여 있으며, 이 가운데 金剛과 五臺와 같이 佛教와 깊은 關係가 있는 山도 있고 雉岳, 太白과 같이 土俗信仰과 깊게 交關되어 國家에서 封定山祭로 封定된 山도 있으나 特히 太白山은 山頂에 天王堂이 있어 天祭를 지내 왔다는데 江原道 다른 名山들의 山祭와 그 뜻을 달리하고 있다.

더욱이 江原道の 封定山祭들 가운데는 文獻에 等第가 밝혀져 있는 것들이 있어 高城의 霜岳, 襄陽의 雪岳등 名山들이 다 文獻備考에 그 奉定等第가 小祀로 되어 있고, 太白山은 新羅 五嶽中 北嶽으로 封定祭儀의 等第는 中祀로 되어 있다. 現傳하는 記錄으로 新羅 以前의 封定祭儀가운데 中祀로 되어 있는 것은 太白山이 唯一하다.

太白山의 祭享이 江原道內 다른 名山의 祭享과 다른 點은 道內에서는 封定等第가 가장 上格이라는 것이 그 하나이고, 둘째는 新羅 五嶽祭中の 하나로 文獻上으로는 道內에서는 가장 그 歷史가 오래 되었다는 點을 들 수 있으며, 세째로 道內의 모든 山祭가 山神祭인데 太白山祭는 “天王祠” “天王堂”이 頂上에 있어 天祭를 享祀했다는 特異性이 있는 祭享이다.

2. 崇 山 思 想

우리나라에는 有名無名の 많은 山에 山神堂이 있고 좀 이름있는 山祭는 國家에서 管掌하는 封定祭儀로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民族의 山에 對한 信仰的 畏敬心の 發

顯으로 그 바탕은 崇山思想에서 나왔고 이 崇山思想의 淵源은 우리의 自然環境과 交關되어 있다.

地誌에 의하면 各郡縣 마다 “祠廟”條가 있어 여기에 빠지지 않고 城隍祠나 厲壇이 들어는 있으나 이들에 對한 享祀는 그 地方에서 行하였지 封定山川祭와 같이 나라에서 香祝을 내려 行하였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封定の 山川祭는 東國文獻備考 禮考 嶽海瀆山川條에 의하면 그 重要度에 따라 大中小祀의 等第를 매겨 國家에서 享祀하였으며 그 歷史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記錄에 나타난것 만으로 보아도 三國以前 부터로 되어 있으니 이러한 現象은 그 밑뿌리가 우리 民族의 崇山思想에 着根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더욱이 太白山의 祭享은 單純한 嶽海祭가 아니고 天祭였다는 것은 太白山이 가지고 있는 映像이나 歷史性이 예사롭지 아니한데서 緣由했음을 勿論이려니와 이것도 그 根源은 韓國民族의 崇山思想과 敬天意識이 融合된 歸結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崇山思想은 우리나라의 土俗信仰의 神位가운데 山神이 많았던가 信仰的 祈求處가 山과 聯關되어 있다던가 우리나라의 거의모든 聚落에는 鎮山이 있어 이 鎮山에는 반드시 神堂이 있다던가 하는 常例的인 事況 말고도 우리나라에는 王朝 建國의 說話들 가운데 山과 連關되어 있는 것이 많으며, 이것도 역시 韓國 사람들의 崇山意識에서 비롯했다 할 것이다. 앞서 桓雄이 太白山頂으로 내려온 肇國譚에서도 建國 背景이 山으로 되어 있고, 古朝鮮의 移都에서 “白岳山 阿斯達”이라고 있는 것도 그 標的은 白岳山에 있었고, 駕洛國의 首露王의 建國譚도 山이 背景이 되어있으며 新羅의 建國에서 赫居世의 탄생설화의 背景도 揚山밑이다. 高麗의 松嶽定都도 “定都于松嶽之陽”으로 되어 있어 여기서의 主體도 松嶽이라는 山으로 되어 있고 李太相가 漢陽遷都 前에는 鷄龍山을 意中에 두었다가 漢陽遷都 때의 兩論 卽 母岳論과 北岳論도 다 山을 念頭に 둔 論議였던 것을 생각하면 韓國 사람들의 山에 對한 想念이나 態度가 어떠했던 가를 짐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생각이나 態度의 震源은 곧 韓國 사람들의 崇山意識이다.

韓國 사람들의 이러한 山에 對한 意識과 畏敬心은 神觀化하여 古代人의 信仰과 結付된데 끝이지 아니하고 近代에 와서도 이러한 생각이 現實的으로 具象化 되어 있는 事例는 얼마든지 있다. 우리나라의 山村에 山神堂이 많고 아직까지 여기서 年中 行事로 享祀를 하고 있는 곳이 많으며 설사 山神堂이라는 固定된 信仰의 當處는 없다 할지라도, 名山 치고 任意의 場所에 祈禱處 없는 곳이 없다. 또 形式的으로 儀形化된 이러한 곳 外에 莫然하게나마 山全體를 靈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例도 많으며 그 가운데 하나를 꼽는다면 六堂의 “白頭山 觀參記”이다. 이 글은 內容도 그러하지 마는 主題부터가 이미 白頭山을 예사롭게 보지 아니하고 있다. 萬若 六堂이 白頭山에 信仰的 意味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白頭山의 登山記를 觀參이라고 쓴 것은 그의 山에 對한 畏敬心의 表象으로 이렇게 되면 이 山은 이미 自然地理的 山이 아니고, 信仰의 堂處가 되고 만다. 觀參을 辭書에 “높은 이에게 찾아 뵈옵고 參拜함”라고 풀이 되어 있으니 이것은 山에 對한 信仰心에서 緣由한 主題라 보아서 틀림이 없고, 이 主題의 用語 하나로, 山에 對한 그의 心境을 充分히 읽을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생각은 비단 六堂 個人만의 생각이라기 보다 韓國사람에게는 一般化 된 생각이라 할때 崇山意識은 한국사람들의 山에 대한 神觀과도 直結되어 진다 할 것이다.

六堂은 山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白頭山觀參記 卷頭에”라는 글에서 “白頭山은 天山聖岳으로 信仰의 대상이었습니다. 帝都神邑으로 歷史의 出發點이었습니다. 靈源化柄으로 文化의 일체 種子였습니다”

이 글은 白頭山이라는 特定한 山에 대한 글로서 우리나라의 모든 山이 다 이러한 視點에서 볼 수 있느냐 하는데는 異議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여러 고을에 걸쳐 있어 그 고을 사람들의 意識속에 깊은 影響을 행사해온 山은 六堂의 白頭山에 대한 想念과 다를 바가 없으리라고 여겨진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山에 대한 神觀的 想念은 白頭山에 局限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六堂은 그의 金剛禮讚에서 “金剛山에 대한 내 致誠의 一祭物은”이라던가 同書

의 “朝鮮精神의 具體的 表象으로 朝鮮人の 生活文化 歴史의 長久코 긴밀한 關係를 가지는 聖的一存在입니다. 옛날에는 生命의 本源 靈魂의 歸依處로 까지”라던가, “尋春巡禮”의 卷頭에 “자유로운 公기를 國土如來의 常寂土에 호흡 하리라는 熱願은 … 震人の 古信仰은 天의 表象이라 하여 山岳으로 그 對象으로 삼았으며” 등은 우리나라의 山들이 信仰의 表象으로 여겨졌음을 말해주는 例示이다. 우리나라의 凡常한 山岳들도 이와 같거늘 新羅 以來 中祀로서의 긴 歴史를 가지고 있고 天祭를 享祀했던 太白山과 같은 것은 肇國譚과의 關係 與否를 고사하고 그 自體가 큰 意味를 가지고 있다.

韓國사람들의 山에 대한 信仰意識은 그 國土的 自然條件으로 보아 原初意識이다. 勿論 오늘 이것을 論考 할 만한 充分한 資料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이 推論에 無理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山岳祭儀가 韓國民族의 경우는 그것이 民族의 原初意識에서 發詳하였기에 이미 部族國家時에 이루어졌다는 東盟이나 舞天, 迎鼓등의 行事에 이런 類의 祭享이 있었을 것으로 推斷이 가고 내려와 三國時代에는 崇山意識에서 온 祭享儀式이 行하여 졌음이 記錄에 남아 있다.

三國史記 沾解居師令 7年條에 있는 “禱祀祖廟及名山”이라던가 高句麗의 “會樂之丘獲猪鹿”라던가 三國史記 卷三十二 祭祀條에 王과 守令들이 各己 그 領內의 名山 大川에서 祭享을 했던 記錄이 있다. 더욱이 新羅는 그 國土內의 名山을 골라 山祭를 지내되 山岳의 比重에 따라 三山은 大祀로 五岳은 中祀로 그 外는 小祀로 그 等位를 區分하고 있는데 太白山은 北岳으로 中祀의 等第를 가지고 있으며 新羅時代 江原道內의 山岳으로 中祀로 享祀되었던 것은 太白山 밖에 없어 그 位相이 예상롭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山祭의 이러한 行政的 조치는 高麗와 朝鮮朝에도 이어져 國內의 主要山祭는 封定等第까지 있었다. 山岳에 이렇게 封定等第가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崇山意識의 位相이 어떠했던가를 말하여 주는 좋은 證左라 할 것이다.

이러한 崇山意識은 土俗信仰的인 面에만 作用했던 것이 아니고 識緯나 風水說과

도 接脈이 되어 있어 自然地勢나 地形을 無意味하게 보지 아니하고 사람에 氣脈이 있어 生動하듯이 山川에도 地氣가 있어 이 地氣의 結融狀態에 따라 吉凶이 造成된다는 思考現象을 낳게 되었다. 따지고 보면 風土說이나 이를 바탕으로 한 讖緯說등도 그 根底에는 崇山意識이 分布하고 있어 名山으로 알려진 山일수록 風水說이 盛하고 이에 따른 讖緯說도 널리 流布되어 있다. 이러한 現象은 지난 날 韓國사람의 意識에 큰 比重으로 作用하여, 알려진 名山으로 風水說話 없는 곳이 없고, 이 說話들은 勝地나 吉地를 찾아 緬禮를 하거나 移居를 하는 原因이 되었고, 國民의 이러한 意識狀態는 마침내 作者를 알수없는 讖緯書까지 낳기에 이르렀다. 이런 類의 典籍 가운데 土亭의 訣書같이 四柱를 바탕으로 한 數理를 根幹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으나, 讖緯中 風水讖緯는 地氣를 前提로 하고 있고 地氣는 名山일수록 旺盛하다고 여겨 名山에 風水說이 盛하게 되었고 이것은 한낱 讖緯說에 끝인 것이 아니고, 어떤 類의 사람들은 거이 信仰化 되어 있다. 太白山은 널리 알려져 있는 名山이기에 우리나라의 이름 있는 風水讖緯書를 본 사람들 가운데 이른바 勝地の 하나가 太白山 자락에 있다고 여겨 移居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風水讖緯書에 있는 “人種求於兩白間”의 句節中 兩白을 太白과 小白으로 任意選擇하고 이 近郊를 살폈던 사람이 近年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本是 風水나 讖緯가 地形이나 思惟의 直觀形成을 通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信憑性은 論外로 치더라도 問題는 이것을 믿고 行動하는 意識에 있다. 이 의식은 거의 信仰的이고 太白山 언저리에는 “千年兵火不入之地”에 세운다는 史庫가 있어 더욱 太白山을 勝地로 浮刻을 시켜 이 山에 對한 崇山意識을 高揚하기에 이르렀다.

韓國사람의 崇山意識에 한가지 더 論考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鎮山信仰이다. 이 鎮山信仰 또는 鎮山意識도 따지고 보면 그 淵源은 崇山意識에 있다. 여기서 鎮山은 單純히 한 고을의 主山이라는 뜻 外에 鎮이라는 뜻이 “의지 한다” 또는 “安定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고을의 無事安寧, 고을 사람들의 生活의 安定과 마음의 鎮定 내지는 依支”라는 뜻으로 보면 鎮山은 單純히 한 고을의 主山이라는 意味 外에 信

仰적 意味를 內包하고 있다는 解釋이 可能하고, 實際 鎮山을 主山이라는 意味보다는 信仰的 意味가 더 強히게 作用하고 있으며 太白山이 新羅 五岳中 北岳으로 中祀로 享祀 되었다는 것은 太白山이 新羅의 北境의 鎮山으로 北쪽의 主山이라는 意味도 있겠으나 鎮山이 가지고 있는 信仰的 意味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이고 鎮山에 대한 이러한 解釋은 朝鮮總督府에서 發刊한 調查資料集 “朝鮮의 鬼神”에도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의 風水를 通한 識緯나 鎮山意識이나 한결같이 그 淵源은 崇山意識에서 發하였고 이 意識은 思想에서 끝인 것이 아니고 行爲를 隨伴하여 韓國社會에 크게 影響을 끼치고 있다.

3. 江原道內的 山祭와 太白山 天祭

江原道에는 이름있는 山이 많아 이들 山에는 有名無名の 山祭가 行하여졌고 儀形은 좀 갈라졌다. 할지라도 오늘날까지 山祭가 남아 傳히는 것이 많다.

우선 文獻에 登載되어 있는 것으로 가장 그 歷史가 오래된 것에 新羅 五岳中 北岳인 太白山의 祭享이 있어 이 祭享은 오늘도 享祀하고 있고, 文獻備考에 의하면 金剛山을 東岳으로 삼았으니 여기서도 山祭는 行하여졌고 五臺山은 東嶺으로 致祭했고 世宗, 世祖實錄에는 雉岳山의 致祭가 記錄되어 있으며 高城의 霜岳 襄陽의 雪岳도 小祀로 封定되어 있었으니 이들은 다 官에서 致祭를 했던 山祭이다.

이것들은 文獻에 登載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文獻에는 실려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江原道 各 고을에는 鎮山이 있고, 이 鎮山에서는 반드시 山祭가 行하였졌었으며 이 外에도 自然部落 單位로 行하여졌던 祭享이 거의 部落마다 있었으나 이들 道內에서 行하여졌던 山祭 가운데 文獻上 記錄으로 가장 오랜 歷史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中祀로 封定된 祭享은 太白山祭享이다.

太白山의 祭享이 三國史記 世宗實錄, 東國輿地勝覽, 三陟邑誌등 外의 여러 文獻

에 실려 있으나 太白山 祭享에서 注目되는 事項이 몇가지 있다. 그 첫째는 現存하는 文獻으로 보았을때 江原道内에서는 가장 오래된 歷史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國家의 封定祭享이라는 것이고 세째는 天祭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하에도 太白山이 한 고을에만 걸쳐 있는 鎭山이면 그 고을 사람들의 享祀로 끝났겠지만 그 자락이 워낙 넓어 江原, 慶南 兩道 사람들이 參祀했다는 記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그리 重視할 거리가 되지 못하나 앞서의 세가지 事項은 太白山 祭享의 位相과 歷史性을 말하여 주는 極히 重要な 事項이다.

우리나라의 山祭의 起源이 民族의 起源과 그 發祥을 같이 했으리라는 類推라던가 山祭에 관한 三國 以前의 일들은 그만둔다하더라도 太白山의 祭享은 新羅 初期부터 이루어진 긴 歷史를 가지고 있다. 三國史記에 “逸聖尼師令五年十月北巡親祀太白山”이라고 있어 逸聖王 때에 이미 太白山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輿地勝覽의 記錄인 “新羅時 爲北岳載中祀”라고 한 것은 年記가 없어 新羅時代인 것만은 昭明하나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앞서의 逸聖王때의 記錄은 年記가 確然하다. 逸聖王은 西紀 134年에서 154년까지 在位했던 新羅 7代王으로 그 5年은 西紀 138年이니 우리나라에 佛敎가 傳來된 해인 高句麗 小獸林王 2年인 西紀 372年에 앞서기 二百三十余年이나 된다. 勿論 이 記錄이 太白山에서의 祭享의 始初라는 것은 아니니 太白山은 新羅初期이전 언제 부터인지는 詳考할 길이 없으나 이미 享祀되어져 聖靈한 곳으로 여겨졌던 곳이다.

逸聖王이 北巡 길에 太白山에 들러 享祀했다는 前記 記錄은 아무리 못잡아도 逸聖王때는 이미 太白山의 祭享이 國家의 封定祭享으로 中視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逸聖王의 北巡路程에 많은 祭享處가 있었을 터인데 그에 參詣했다는 記錄은 없고 오직 太白山에서 祭享했다는 記錄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祭享이 新羅로서는 얼마나 重視했던 祭享인가를 알수 있게한다. 2世紀頃에 國王이 奉祀했다는 긴 歷史를 가지고 있는 祭享은 江原道에는 이것하나 밖에 없다.

둘째로 太白山의 祭享이 新羅때 中祀로 封定되었다는데 이 祭享의 重要性이 있다. 新羅時代는 山川祭를 重視하여 三山 五岳을 設定하고 三山은 大祀로 五岳은 中祀로 封定하였다. 우리나라에 部落마다 數 많은 山神祭가 있지만 山祭의 等第를 나라에서 封定한 山祭는 그리 많지 아니하다. 이 封定 山祭는 官에서 祭享을 主管함은 勿論 나라에서 香祝을 내리는 祭享이다.

江原道内에는 이름있는 山이 많아 封定山祭가 몇 있으나 이 封定은 時代에 따라 달라진다. 한번 山祭의 等第가 封定되면 그 資格이 永久히 가는 것이 아니고 時代따라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太宗實錄 卷 28, 太宗 11年 8月條에 “本朝承前朝之制 山川之祀未分等第 境内名山大川及諸山川 依古制分等從之”라는 것으로 보아서도, 朝鮮以前부터 우리에게서 封定祭享이 있었으나 朝鮮建國初期에는 그 制度가 한 때 없어졌던 것을 다시 古制에 準하여 復元했다고 하여 祭享의 封定도 變遷했던 것을 알 수 있다. 江原道の 山祭로서는 霜岳과 雪岳이 小祀였고 中祀는 오직 太白山 한 곳 밖에 없었으니 太白山의 祭享은 그 歷史로 보나 等第로 보나 道内에서는 가장 重要的 封定祭享이었다.

더욱이 文獻備考 禮考 岳海濱山川條에 “基臨王三年至牛頭州 望祭太白山”이라는 句節의 示唆는 큰意味를 가지고 있다. 앞서 逸聖王은 北巡때 太白山祭享을 몸소 享祀했다 했거니와 基臨王은 春川에서 太白山에 望祭를 지냈다고 했으니 太白山祭의 比重이 示唆된 글이다. 江原道内에는 雉岳, 五臺, 金剛, 雪岳등 여러 名山이 있고 이 가운데서 金剛과 雪岳은 小祀로 封定된 산이고 거리로 보아서도 太白山이 春川에서 雪岳 金剛보다 훨씬 가깝다면 몰라도, 그렇지도 아니한 事況에서 王은 오직 太白山에만 望祭를 지냈다. 望祭는 肅모하는 심정은 간절한데 事情이 있어 直接 가지 못할때 지내는 祭享으로 直接 參祀하는 祭享보다 더 간절한데가 있는 祭享이다. 望哭이나 望拜, 望祭가 다 어찌하지 못할 自意의 간절한 表象이라 할 때 王이 春川서 數百里 떠러진 太白山에 望祭를 올렸다는 것은 當時 太白山의 位相이 어떠 했던가를 알려주는 좋은 例이다.

太白山 祭享의 特異性的의 하나는 이 祭享이 天祭라는 것이다. 與地勝覽에 山頂에 俗稱天王堂이 있다고 있고 陟州誌에는 그 絶頂에 天王祠를 지었다고 있고, 世宗實錄地理誌에는 太白山 天王堂으로 되어 있다. 山祭의 神位는 山神이 通例로 되어 있는데 太白山의 神位는 天王 또는 天神으로 되어 있어 特異한데가 있다. 이것은 太白山이라는 山名이 우리의 肇國神話의 背景山名과 同一하고 여기에 登場하는 桓因 桓雄 檀君이 다 天神의 神格으로 파악된 概念에서 온것으로 보이며 最近에 와서는 이러한 概念의 具象化가 太白山下 所道洞의 檀君聖殿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檀君聖殿의 建立은 最近의 일이지마는 太白山頂에 天王堂이 있었던 것은 오래된 記錄이 있고 天王堂이기에 그 神位는 天神이며 天神에 對한 祭였기에 이곳의 祭享은 通常 어디서나 있는 山神祭가 아니라 天祭였다. 眉叟記言에 나오는 太白之靈도 天神이나하는 것이라던가 檀君의 아사달 山神譚등 山神과의 交關이 있기는 하나 이곳에 天王堂이 있어 이 祭享은 天神에 對한 祭享으로 다른 山祭에서는 보기드문 天祭라는데 太白山 祭享의 特異하다.

4. 結 語

한 民族이나 集團의 自然環境은 그 構成員들의 意識構造에 原初적으로 作用하고 있어 우리와 같이 山岳이 國土의 7·8割을 點하고 있는 自然環境 속에서 生活한 民族은 崇山意識이 強하기 마련이고, 이 崇山意識을 바탕으로한 山神思想이나 山崇儀式은 土俗信仰에 큰 比重을 갖게 마련이다.

우리의 이러한 環境的 與件은 肇國神話의 背景을 山頂으로 設定하였고 國祖의 死後를 山神과 結付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名山 마다에는 그에 合當한 祭享이 있고 각 고을 鎭山 마다에도, 山祭가 行하여졌었다. 이렇게 山岳이 信仰의 當處가 된것은 崇山意識에서 緣由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三國時代에 이미 山祭를 重視하여 大中小祀의 等第로 封定하고 나라에서 이 祭享을 管掌하여 왔다.

江原道에서 記錄으로 남은 가장 오래된 歷史를 가지고 있고, 中祀에 封定된 祭享은 太白山 祭享이다. 太白山 祭享은 앞서 言及한 대로 그 歷史가 道内에서는 가장 오래 되었고 封定等第가 가장 높다는 것 外에 山頂에 天王堂이 있어 그 神位가 天王 卽 天神이었다는데 다른 封定山祭에서는 찾을 수 없는 特異性이 있고 여기에 天王堂이 있는 것은 肇國神話의 天神들과 交關된데서 緣由했다 할 것이다. 오늘 아직도 山神堂이 있는 곳에서 山神祭를 지내는 곳은 많으나 太白山과 같이 天祭로 祭享되어진 것은 極히 드물고 太白山의 天祭는 特異한 祭享이다.

태백산 천제와 향토축제

장 정 룡

(강릉대 교수)

1. 태백산 천제의 민속학적 의의

태백은 무엇인가? 알려진 대로 한밤음이다. 이처럼 태백은 지명부터 심상치 않고 이 지역에 당골이니 소도니 하는 지명을 보면 더욱 민족정신과 결부시킬 수 있게 된다. 더구나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인 검룡소와 용소가 있으니 유구한 역사가 샘물에서 대하로 흐르고 있다. 하늘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태백사람들이다.

한민족을 배달민족이라 부르고 백의민족이라고도 하는 것은 광명을 지향하는 우리민족성과 일치한다. 따라서 태백산은 민족의 시원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신성한 영역이 된다. 홍익인간의 이념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이상은 태백산 천제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민족의 남하에 따라 태백은 남부산맥의 척추로 옮겨왔으나 단군신화에 나타난 민족사적 의의는 오늘까지 지속되는 것이다.

환인의 아드님 환웅이 하늘에서 무리 삼 천을 이끌고 신단수 아래 신시를 베푼 곳이 바로 태백산이기 때문이다. 태백산에 단군성전이 세워져 있고 태백산을 중심으로 산제와 산맥이길, 무속행위가 이뤄지는 것도 알고 보면 오랜 역사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태백산 천제는 삼한시대부터 행해졌고 신라때 혁거세왕은 태백산에 천부단을 쌓고 제사를 올렸다. 또한 일성왕은 음력 10월에 친히 북쪽을 순행하며 태백산에 천제를

올렸다고 「삼국사기」에는 적고 있다. 기림왕도 우두주에서 태백산을 향하여 望祭를 드리니 낙랑과 대방이 항복했다고 전하며 신라 화랑 원술은 천제를 지내고 나서 당나라 군사를 대파했다는 기록도 있다. 태백산은 이처럼 중요한 치제의 聖所로 전해 왔는데 신라때는 中祀로 복악이 들었는데 이곳은 바로 태백산으로 국가치제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후 고려 조선조까지 태백산은 관에서 주관하여 천제를 지냈는데 「동국여지승람」에는 태백산 정상에 천왕당이 있어 봄과 가을에 제사를 올렸다고 하였다. 이 기록에 의하면 제수는 소를 썼으며 제를 지낸 후에 3일 후에 삼척부에서 소를 다시 거두었는데 이를 退牛라 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척주지」 「진주지」 「허백당집」 「미수기언」 등에 전하는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태백산의 천제는 매우 성대했고 신성하게 치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1661년 삼척부사로 왔던 허목이 쓴 「미수기언」 피조에는 백두옹이라는 태백산 신령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화소가 첨가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신라때 국가치제가 차츰 민간치제로 이행되어 간 것이 아닐까 의심된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태백산은 단순한 성소에서 다각적인 의미를 지닌 민족의 영산으로 환치되었던 바, 나라가 위급할 때 극난극복의 의지를 보인 구한말 의병장 신돌석은 태백산 천제단에서 백마를 제물로 하여 천제를 올리고 이에 큰 힘을 얻은 의병들과 함께 도처에서 전공을 세우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민족의 빛, 생명, 창조의 성지로서 태백산은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태백산 천제는 태백산천제위원회라는 단체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다. 제천대회라는 명칭부터 고대 부족국가시대의 국중대회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관에서 민으로 이행된 것이 다를 뿐이다. 제관의 복색을 신라때 양식으로 만들어 입은 것도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1,567미터 태백산의 천제단은 오랜 역

사성과 민속학적 가치를 인정 받아 국가지정민속자료가 되었다.

시대는 흘렀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변하지 않은 태백천제는 강신, 참신, 주유, 고천, 송신, 소지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내용은 모두 우리말로 풀어서 진행되는데 천제단 주위에는 5색의 기에 28수의 별자리를 그려넣었으며 중앙에는 태극기를 꽂았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

「단기 4323년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태백산천제단에서 제천대회장 김강산과 제원 일동은 제계목욕 정성들여 유서깊은 천하명산 태백산 상상봉의 천제단에서 삼가 한배한느님께 잔을 올리나이다. 아득히 먼 반만년 유구한 세월전 한배하느님의 성지를 받들어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강림하신 환웅천왕님과 단군왕검님으로 하여금 우리 겨레의 핏줄을 잇게 하신 한배하느님이시여. 강림좌정하시어 굽어 살피어 애공히 여기소서.

배달의 조상이며 삼만리 강산의 주신이시며 삼신일체 한배하느님이시여. 하루빨리 잃었던 고토를 찾게 하시어 주시옵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마에 신음하는 불쌍한 생명들을 돌보아 주소서. 나아가 인류와 세계평화를 회복토록 소소영영한 능력을 발휘토록 간구 염원하나이다. 자애롭고 인자하신 한배하느님이시여. 홍익인간의 이념이 온 누리에 비쳐 지상낙원이되게 하소서. 우리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간절한 제수로 삼가 갖추어 받들어 올리오니 흠향하소서」

천제의 신앙적 양식이 곧 일반화된 민간신앙이 될 수 없음은 이상의 축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민족정기를 수호하는 의미의 태백산 천제가 국가적 제의나 태백지역의 향토축제로 승화되지 못한 것이 아쉬우나 이렇게라도 되살아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태백산 천제에 소머리를 사용한 것은 옛 문헌에 근거하여 원형을 살렸고, 복색, 홀기, 의식상의 절차에서 민족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음은 태백천제의 의미가 오늘의 시

점에서 되살아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고자 하는 중요한 의지로 생각된다. 따라서 태백산 천제단에서 전국체전 성화를 채화하자는 주장도 더욱 뜻깊은 구상이라고 보겠다. 신앙과 종교의 차원을 떠나 태백산 천제가 국가적 공동체 행사로 정착되도록 올바른 이해와 관심이 요구되는 것 또한 가치관이 혼란한 오늘의 시대에 필요한 일이다. 포괄적인 하늘관을 수용한 태백산 천제는 민속학적 측면에서 민족영생의 성제로 재조명되어야 하며 그것은 민족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리라 본다.

2. 강원도 축제문화의 이해

오늘날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날로 고조되어 감에 따라 향토축제는 지역민의 문화적 역량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훌륭한 무대가 되고 있다. 향토축제는 민족문화의 근간이 향토성에 있음을 반영하는 문화행사로 자기 고장의 민속을 필요에 의해 자기 고장에서 전승하려는 의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마다 일정한 시기에 한마당 축제마당을 열어 올바르게 제 고장의 민속을 지역공동체간에 향유하려함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향토축제는 무엇보다 그 지역의 역사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아울러 지역성과 향토성이 강조될 때 차원높은 축제문화를 선도할 수 있다.

특성없는 향토축제는 적잖은 낭비요소를 안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적, 예술적 기능을 고려할 때 미흡하거나 아쉬운 것은 차츰 지역민의 정서에 맞도록 개선해야 마땅하다. 개최시기나 주관처의 문제, 민속행사의 고증상 문제, 지역주민과 자발적인 참여 유도, 청소년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문제 등이 총체적으로 논의되어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94년은 이른바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도록 정한 해로서 관광공사에서는 이를 준비하는 행사로 전국 360여개 향토축제에서 10개를 선정하였다. 강원도에서는 대표적인

민속축제로 강릉단오제, 가을 단풍축제로 설악제, 겨울축제로 용평눈축제가 들어가는 영광을 안았는데 이것은 강원도 향토축제가 특성화되었음을 보여주었음은 물론이고 외국에도 자랑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자부심도 갖게 한다.

향토축제는 무엇보다 지역의 자랑거리를 응집하여 집약적으로 단시일안에 펼쳐 보인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아울러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예술의 계승과 선양, 교류를 통해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경제적인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기능을 갖는다. 향토축제는 다양한 이질적 요소들이 통합되고 다시 분산되는 과정을 통해 건강한 삶의 리듬을 회복케 해준다.

민속놀이를 포함하여 민속극, 민요, 농악, 민속무용 등과 제의를 수반한 독특한 문화양상이 축제문화속에 표출되는데 강원도 향토축제는 그 본래의 유형상 몇 가지로 나뉜다.

우선 가장 보편적인 것이 이른바 종합형 문화향토축제로서 전통민속행사와 함께 시, 군민의 날과 같은 위안경축행사, 체육대회와 같은 내용들이 종합되어 행해지는 경우다. 문화제라든가 축전이라는 이름도 쓰고 있는 이 유형에 드는 것으로는 춘천시·군 소양제, 동해 무릉제, 명주 무천제, 고성 수성제, 양구 양록제, 삼척시 죽서제, 횡성 태풍제, 철원 태봉제, 화천 용화제, 인제 합강제 등이 있다.

역사·제의적 축제는 지역의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기리는 기념제나 추모제, 산신제, 부락제 같은 제의들을 중심으로 축제가 열리는 경우다. 강릉단오제(국사성황신제), 원주 치악제(동악산신제), 태백 태백제(천제·단군제), 속초 설악제(산신제), 영월 단종제(추모제), 평창 노성제(충의제), 정선 아리랑제(충신제), 홍천 한서제(추모제)가 있으며 이외도 강릉 율곡선생제, 명주 명주군왕제, 명주 청학제, 춘성 의암 유인석 선생제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축제가운데는 차츰 종합형 향토축제로 변하고 있는 것이 있고, 본래의

취지대로 행해지는 것으로 양분된 실정이다. 종합형 축제를 지향하는 이유야 여러가지 있겠으나 행사 주관자들이나 주민들의 인식변화, 축제자체의 의미변화 등을 들 수 있고 이외에도 축제 분위기를 살리고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한다는 명분도 있으나 원초성은 역사·제의적인 형태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세번째, 민속놀이경연 중심의 축제는 1983년 시작된 이래 금년에 11회째를 맞은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있다. 이 경연중심의 축제는 그동안 시·군에 잔존되어 온 200여 종목의 새로운 민속을 발굴하는 계기를 만들었는데 1984년 제2회 경연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금년의 삼척대회에서는 21개 시군에서 민속놀이 12, 민속무용 1, 농악 4, 민요 4개 종목으로 경연하여 양구의 바랑골 농요가 최우수상을 차지하였다. 아쉬운 것은 어촌민속과 산간민속이 합쳐서 3개 시군에서 출연했는데 태백시의 외다무다리 놀기, 인제의 바지게 선질꾼, 고성의 풍어기원제로 아쉬움을 남겼다. 농요와 농악은 8개 시군에서 출연하여 농경민속이 활발하게 발굴되었다.

전국대회 수상현황은 이밖에도 명주 하평답교농악, 양양 상복골농요, 패다리놀이, 인제 솟둔골 솟굽기 등은 문화공보부장관상, 정선의 지게춤 물박장단, 횡성 우밀어리리타령은 문예진흥원장상을 받는 등 많은 결실을 보았다. 이러한 성과는 향토축제를 근간으로 하여 지역민들이 나름대로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올린 것이기에 값진 것들이다.

네번째 예술제 형태는 강원종합예술제와 영동종합예술제가 있다. 이들 행사는 주로 현대문화를 중심으로 열리고 있는데 예술총연합회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춘천과 강릉에서 따로 연다. 예술제 형태는 전통축제의 개념과는 달리 하지만 현대예술인들이 모여 연극, 음악, 사진, 무용, 미술 등 그들 작품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예술인들의 축제마당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은 오늘날의 축제문화는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구성하고 있는데, 현재 강원지역에서 행해지는 전통마을축제와 민속경연대회에서 진행되는 향토민속의 특징과 축제문화를 전망하고자 한다.

누구나 공감하는 일이겠으나 우리사회는 최근들어 급격한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농경사회의 구조변화는 차츰 산업사회속에서 핵분열하여 개별화된 문화형태로 전개되면서 향유층이나 담당층의 집단화로 일컬어 질 수 있는 민속예술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다행히 각 시군의 향토축제는 가능하면 전통문화를 유지하고 이를 계승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민속경연대회도 그러한 취지를 살려나가는 쪽에서 이어지고 있으므로 민속예술의 활성화에 값진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강원도 향토축제가 어느정도 특성화와 차별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다른 창안없이 타 지역행사를 모방하거나 불필요한 진열식 행사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곳도 있다. 따라서 지역민들조차 자기 동네에서 행해지는 축제에 관심을 나타내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일부 행사를 꼬집어 미신이니 관제행사니 하는 식으로 불평만 늘어놓는다. 물론 정당한 비판은 창조적인 역할을 하리라 생각되지만 자신들은 수수방관하면서 지역축제가 잘 되기를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향토축제를 한다면서 외부의 장사꾼이나 불러들어 난전을 만들고 소비적인 장터구실에 그친다면 향토축제는 분명 낭비적 요소가 많다. 또한 향토축제는 일부 공무원을 위한 행사도 아니고 축제위원장을 위한 행사는 더욱 아니다. 지역민들이 자발적인 의지로 소박하지만 자신들의 기능을 자랑하고 함께 일상의 질곡에서 벗어나 휴식을 통한 재생산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향토축제를 보다 의미있게 보다 지역특성을 살려나가려는 과제는 주민들에 의해 창출되어야 하고 주민들에 의해 실천되어야 함은 마땅한 논리다.

강원도의 지리적 여건을 살필때 해양과 산악, 농경민속문화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향토축제라는 이름의 종합형 축제는 대부분 이러한 기층문화권을 축제마당에 내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한 민속놀이들을 발표순으로 살펴보면 지역적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양민속문화권에 드는 것들로는 거진어신제, 강문 진또배기, 속초 산대놀이, 뱃소리, 수술굿, 용왕굿, 동해 용등놀이, 화천 냉경지 소금배 오는날, 인제 개운동 배모으기, 고성 반바우 후리질 민속놀이 등은 지역성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도 많은 소재 발굴이 기대된다.

산악민속문화권은 지역특성을 살려 다양하고 풍부한 소재를 바탕으로 많은 민속이 발굴 소개되었는데 평창 황병산 사냥놀이, 태백 갈풀썰이, 명주 신령산 고비고사리 꺾기, 동해 고주목 나르기, 인제 솟둔골 솟굽기, 영월 지게 행상놀이, 화천 나뭇꾼놀이, 춘천 통지게타령, 양양 복골지게가리싸움, 철원 화전농요, 태백 지게싸움놀이, 멧돼지 사냥놀이, 삼척 사금산목도 끈소리, 노와집짓기, 홍천·정선 토방집짓기, 양구 지게놀이, 인제 채독만들기 등이 나왔다.

내용상으로 볼 수 있듯이 화전관계 산악민속이 비교적 많았는데 지계를 이용하여 놀았던 내용들이 재현되어 독특한 강원민속을 되찾게 되었다. 이를 잘 보완한다면 전국에 자랑할 훌륭한 민속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농경민속문화권을 반영한 것으로는 양양 패다리농기, 원성 지경다지기, 정산 아리랑, 원주 기줄다리기, 강릉·철원·춘성·삼척·명주·철원·원성·동해·양양·영월 원주 농악, 횡성 미나리타령, 학산 오독떼기, 붓물싸움놀이, 동해 질먹기놀이, 철원 농기싸움, 머슴날놀이, 양양 씨레메기, 삼척 농장놀이, 강릉 용물달기, 좁상날 억지다리뺨기 등이 나왔다. 민요와 농악, 농사관련 민속놀이들은 강원도 농경문화를 잘 보여주는 종목들이다.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지역의 민속들이 향토축제나 민속경연대회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거나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개중에는 억지로 '경연대회용 민속'으로 창조한 경우도 있었지만 11회를 거치면서 연출자나 참여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전통 민속이 재현되고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되었다는 점이 다행스럽다. 늘 새로운 민속만을 소재로 경연대회에 참여할 수 만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경연대회의 등위가 곧 민속나름의 가치척도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위험한 것이다. 상을 받건 못받건 지역민속은 나름의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지속적인 보완과 계승노력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민속경연대회는 경연이 주 목적이 아니다. 더구나 그것을 관에서 주관한다하여 관주도 행사가 아니며, 아울러 민속을 획일화시키고자 많은 예산을 들여 개최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거기에는 경연을 통한 축제문화의 정착, 전통문화의 발굴 계승, 지역간 민속의 교류라는 차원높은 뜻이 있고, 경연대회에 나온 전통민속들이 지역의 대표성을 지닌 민속으로 계승정착되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도 담고 있다. 고중에도 없는 것을 꾸며내고, 억지 연출이나 과장된 몸짓, 일회용으로 만든 민속들이 경연 이후에 사장되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음은 큰 교훈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민속경연대회에 출연되는 민속들은 그 지방의 향토축제에서 다듬고 정비하여 바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주민들이 애정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기왕 발굴된 민속들을 잘 보존하려는 자세는 새로운 것을 애써 찾으려는 태도보다 소중하다. 그러므로 향토축제때 기왕 발굴한 민속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출연시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정선 아리랑제나 평창 노성제, 속초 설악제 민속경연을 통해 발굴된 민속들이 도민속경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것이 축제때 재현되고 있음은 귀감이 될 법하다.

지방문화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강원도민속경연대회는 여러 개선안을 마련하였는데

경연형식과 축제형식을 융합하여 기층문화의 계승과 정착이라는 차원에서 수상과 지원의 폭을 넓혔다. 그동안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강원도의 잊혀져 가는 화전민속이나 지계를 이용했던 생활예술이 되살아 난 것이나 날로 사라지는 어촌민속이 발굴되고 농촌풍속들이 경연을 통해 재현된 것은 민속자료의 발굴이나 계승차원에서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지역토박이들에게는 무한한 긍지를 주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경연대회에 치중하다보니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충실히 살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자연스런 축제로 승화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막대한 재원을 들이고 모처럼 전 강원도의 민속예술이 만나는 마당에 지역민들을 이곳으로 흡수하지 못한 채 경연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앞으로 많은 방법론상의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매년 시군에서의 의무적으로 출연하다보니 충실하지 못한 폐단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22개 시군을 반으로 갈라 한 해에 11개 시군이 출연하여 하루동안 자연스럽게 자기 지역의 문화를 자랑하는 축제마당을 펼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이렇게 되면 격년으로 출연하게 되어 고증이나 연출에 충실을 기하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민속예술경연을 주말로 날짜를 잡아 학생들도 참가하여 관람하도록 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그것도 각 시군의 향토축제와 연계하여 치루거나 기념일, 체전과 함께 운영함으로써 그 지역주민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축제마당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굳이 경연대회만을 위해 행사를 운영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일 이유도 없고 운동장 같은 넓은 장소도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제는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도 11년이 된 상황에서 심각하게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본다.

향토축제가 지역간 차별화를 지니고 나름의 독창성을 지닐때 가치있음은 자명하다. 다양하고 독자적인 전통민속들을 주축으로 지역의 역사를 계승하고 올바른 문화창조에 기여해야 한다. 이제는 지역마다 향토축제가 범주민적으로 행해지고 대규모로 이루어

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요소를 없애고 지역민들이 긍지를 갖고 자랑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지역민의 지혜나 기술, 토산물, 주변 관광 자원들을 활용한 실질적인 주민소득이 있도록 축제문화를 꾸려 나감으로써 정신적인 측면의 소득이외에도 생산적인 부가가치가 생기도록 창안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본다.

3. 태백산 천제와 향토축제 활성화

태백산 천제는 천제를 지내는 장소인 천제단이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이상 그 중요성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태백제는 어떤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강원도의 지역축제를 검토했지만 지역축제가 잘 보존되고 올바른 전통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축제와는 다른 차별화와 특성화를 꾀하여야 한다. 강릉의 단오제는 단오라는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난장을 구성하고 여기에 지역민들이 자발적인 민간주도의 행사를 펼쳐 전국적인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영월 단종제는 단종을 중심으로, 정선 아리랑제는 아리랑을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태백제는 당연히 지역의 특성을 살려 나가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것은 영산 태백산을 중심으로 한 천제행사를 당연히 태백의 향토축제중심에 놓고 그외의 부대 행사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성을 강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 태백제라는 명칭부터 전혀 특징이 없다고 본다면 앞으로 태백의 향토축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금년으로 제12회를 맞이한 태백제는 태백제위원회를 결성하여 문예행사, 민속행사, 제례행사, 공개행사, 체육행사를 치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적인 축제의 구심체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 행사를 학교운동장에서 열다보니 시간이나 무대의 제한이 뒤따르고 제례행사가 실질적인 태백제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마치 시민위안의 날이나 체육대회, 단합대회 같은 인상을 풍기게 하고 있음은 누구나 지적하는 일이다.

따라서 태백시의 태백제는 그 명칭부터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와 아울러 향토축제가 무엇을 위한 행사며 결국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학계의 자문을 구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새롭게 만들어 나갈 때 의미있는 향토축제의 하나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태백산의 천제는 태백시로 볼 때 매우 중요하고도 좋은 축제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을 중심으로 태백시가 전국의 시선을 모을 수 있고 태백제를 특징적인 향토축제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시민헌장」에도 나와 있듯이, 태백은 해돋구치는 푸른 동해의 찬란한 빛을 받아 5천년 민족의 역사를 줄기차게 이어온 선택된 땅에 보금자리를 잡았다. 태백산맥은 통일기상의 상징이며 동시에 핵이고, 남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로 민족생명의 샘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때 향토축제는 전국적인 축제화를 이끌 수 있으며 이와 아울러 주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적 긍지와 함께 문화계승의 마당으로 비약할 수 있을 것이다.

